NEXEN TIRE
MAGAZINE

2025 autumn
vol. 101

HELLO NEXEN



삶에서 마주하는 변화의 순간,
살짝 꺾인 길목에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그리고 이 변화의 순간은 예상치 못한
작은 도전과 선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붉게 피어난 저 가을 풍경처럼,
우리 마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물들 시간이다.

contents

www.nexentire.com

90°
터닝포인트

2025 autumn
vol. 101

SPECIAL THEME

06 **SCIENCE**
90° 커브길,
타이어의 보이지 않는 싸움

10 **BEHIND**
버려진 시간을 문화로!
공간의 터닝포인트, 두 번째 전성기

16 **TEAM**
서로 다른 우리가 만드는 큰 시너지
한국고객만족실 버크만 진단

20 **ITEM**
생각의 시야를 새롭게 밝히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뉴스레터를 소개합니다

헬로우 넥센

2025 AUTUMN (통권 101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인재개발팀 전재갑 팀장, 신혜리 선임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FSC
www.fsc.org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159581

본 사보의 표지 및 내지는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BEHIND



STATION 1

26 **TIRE TECH**
안심할 수 있는 선택, 믿고 찾는 매장
타이어테크 광주본점

30 **CULTURE TRIP**
이색 문화 체험!
식탁 앞에서 펼쳐진 특별한 연극

34 **문화多방**
인생에서 만나는 터닝포인트 90°
올해의 나, 어디로 가고 있나요?

38 **밥 한끼 프로젝트**
소중한 동료에게
도시락과 함께 따뜻한 진심을 전합니다~

40 **CS 케이스 스터디**
한국고객만족실 우수 CS실장이 전하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응대
기억에 남는 서비스!

44 **NEXEN CSR**
수확의 기쁨을 나누다!
신규 입사자들과 함께한 넥센타이어 '농촌봉사활동'

46 **내돈내산**
작지만 내 삶을 편리하게 바꿔준 특별한 아이템!
넥센인들이 추천하는 다이소 꿀템!

STATION 2

52 **미래참견시점**
AI, 모방 수준을 넘어 창작까지?
작가가 죽어도 영혼을 간직한 새로운 작품은 이어진다

56 **AI 정복하기**
프롬프터 팁!
단계별로 자세히 물을수록 똑똑해진다!

60 **철학하는 타이어**
속도보다 중요한 타이밍!
찰나의 기회를 잡아 명승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64 **속마음 번역기**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두루뭉술한 화법이 불러온 오해의 순간들

68 **ISSUE 1**
국내 업계 최초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

72 **ISSUE 2**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풀어가요"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

74 **ISSUE 3**
AI·데이터로 일하는 스마트 혁신
'DT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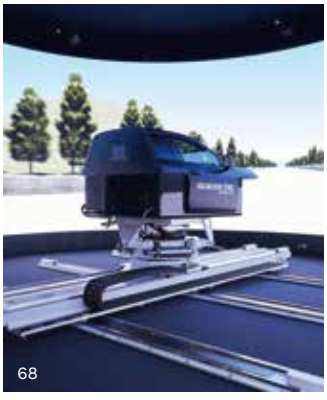
76 **ISSUE 4**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 R&D Tour 개최

78 **NEWS**

CULTURE TRIP



ISSUE 1



90°
터닝포인트

쉴 틈 없이 달려온 길 위에서,
우리는 문득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을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진만 하는 타이어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날렵하게 꺾이며
타이어는 항상 더 넓고 멋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90°의 순간 또한 끝이 아닌 전환,
차원 높은 성장을 향한 변곡점입니다.
여태껏 달려온 속도만큼 과감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는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도 속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전환이 또 다른 시작이 되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마주할 놀라운 풍경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Text. 박태준 더헤일로 대표(『충전 중인 대한민국 전기차』 저자)



90° 커브길, 타이어의 보이지 않는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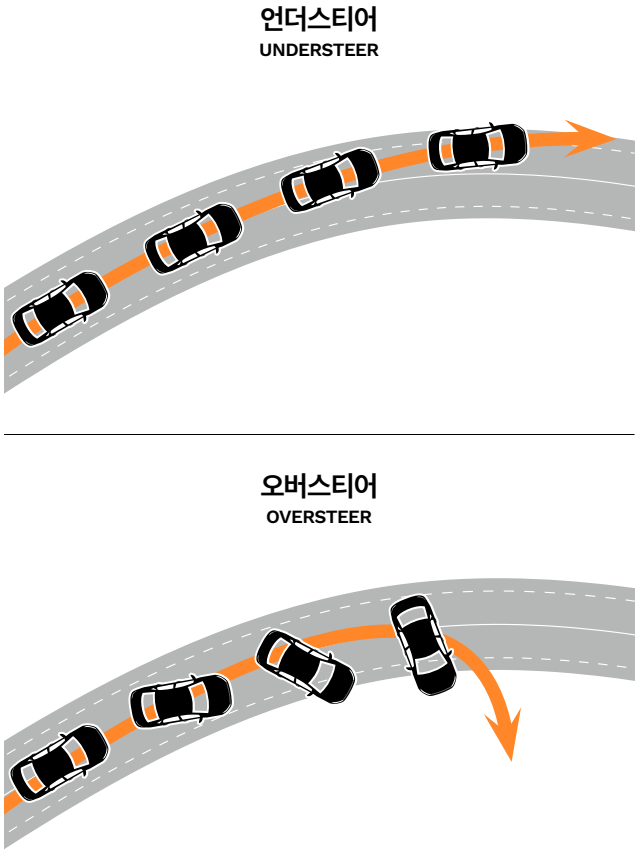
자동차가 곡선을 돌 때, 운전자가 스티어링(핸들)을 살짝만 움직여도 주행 방향은 즉시 바뀐다. 단순히 핸들을 조금 틀였을 뿐이지만, 그 순간 자동차 안에서는 복잡한 물리 현상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곡선 주행 시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밀려 나가려는 힘에 대항하며 안정적으로 달리기 위해 끊임없이 균형을 잡는다. 만약 급커브에서 타이어가 노면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자동차는 미끄러져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

곡선에서 때로는 핸들을 돌린 것보다 차가 과도하게 회전하거나, 반대로 덜 도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버스티어(Oversteer)와 언더스티어(Understeer)다. 오버스티어는 차량이 지나치게 많이 회전하면서 뒷부분이 미끄러지는 현상이다. 심하면 차가 제어력을 잃고 빙글빙글 돌기도 한다. 주로 뒷바퀴의 접지력이 앞바퀴보다 먼저 떨어질 때 발생하며, 후륜구동차나 스포츠카에서 자주 나타난다. 언더스티어는 그 반대다. 핸들을 충분히 돌렸는데도 차가 덜 도는 현상으로, 앞바퀴가 미끄러지며 차량은 의도한 궤도보다 바깥쪽으로 밀려난다. 전륜구동차에서 흔히 발생하고, 특히 커브에 너무 빠르게 진입했을 때, 빗길·눈길에서 쉽게 나타난다.

결국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타이어와 노면 간 마찰력 부족이다. 타이어의 역할은 단순히 무게를 지탱하는 것을 넘어 가속, 제동, 방향 전환까지 모두 담당한다. 접지력은 '타이어에 걸린 하중 × 고무의 마찰계수'로 수치화할 수 있으며, 이 힘은 한정되어 있다. 힘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쓰이면 균형이 깨져 결국 미끄러짐이 발생한다.

타이어 업체들은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한다. 대표적으로 고무 재질(컴파운드)과 트레드 패턴이 있다. 고무 컴파운드는 계절·온도·습도의 변화에도 항상 일정 수준의 접지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여름용은 고온에서도 변형되거나 마모가 빨라지지 않도록 하고 겨울용은 고무가 굳어 접지력을 잃지 않도록 유연성을 유지한다. 또한 여름용과 겨울용 타이어는 트레드 패턴 디자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여름용은 장마철 빗길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접지 면적을 넓히고, 세로로 깊게 파인 그루브(세로로 나 있는 깊은 홈)를 적용해 빗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함으로써 수막현상을 줄인다. 반면 겨울용은 눈길과 빙판길에서 미끄럼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타이어 중심에는 직선 형태의 블록을 배치해 안정적인 주행을 돕고, 블록 곳곳에 미세한 홈(커프)을 더해 제동력과 조종 성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계절에 맞는 패턴을 적용하면 기후 조건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타이어를 비대칭으로 설계하거나 내부 구



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코너링 안정성을 높인다. 바깥쪽 블록을 단단히 설계해 고속 코너링에서도 접지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타이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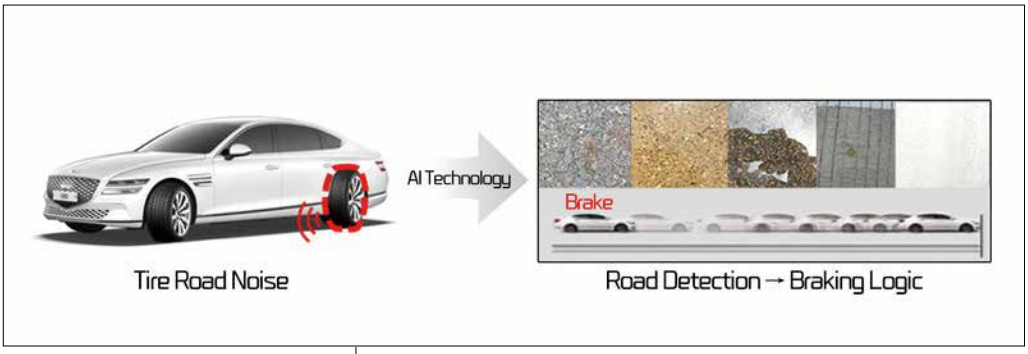
타이어 기술에 여러 시스템이 더해져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전자제어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장치가 ESP(전자 제어 주행 안전장치)다. 조향 방향과 실제 차량 움직임이 다를 경우 각 바퀴에 개별 제동을 가해 미끄러짐을 억제한다. 오버스티어 발생 시 앞바퀴에 제동을 걸어 회전을 억제하고, 언더스티어 때는 뒷바퀴를 제동해 선회를 유도한다. AWD(4륜 구동) 역시 각 바퀴에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배분해 접지력이 떨어진 부분을 보완한다. TPMS(타이어 공기압 경고 시스템)는 공기압 저하로 접지력이 급감하는 상황을 즉시 알려 운전자가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의 경우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세심한 기술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들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무겁고, 반응 속도가 빨라 타이어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롭다. 대용량 배터리로 인해 무게가 크게 늘어나므로, 타이어는 강성이 높고 구조가 두꺼워야 한다. 이렇게 해야 코너링 중 타이어의 뒤틀림을 억제해 언더스티어를 줄일 수 있다. 또 전기차는 조용하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 두드러지므로, 소음을 줄이면서 접지력을 확보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타이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발달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새로운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먼저 넥센타이어는 현대차·기아, 인하대학교와 함께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AI 빅데이터를 적용한 노면 감지와 타이어 제동거리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콘크리트, 신규 아스팔트, 노후된 아스팔트의 마른 노면이나 젖은 노면 등 다양한 노면 외부 소음을 AI 빅데이터 기술로 수집 및 축적한 후 방대한 데이터 결과값을 이용해 노면의 상태를 감지하고 이를 타이어 제동 특성에 반영하는 기술이다. 넥센타이어는 이 기술을 기후 환경이나 노면 조건에 최적화한 타이어 제동 로직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능형 타이어 시스템을 개발 중인 국내의 한 스타트업은 타이어에 장착된 센서와 통신 기술로 온도와 압력, 상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차 사고 위험을 낮추고 연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글로벌





넥센타이어는 빅데이터를 적용한
노면 거리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타이어 기업은 타이어 내부 센서로 노면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타이어의 폭과 공기압을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타이어를 선보였다.

이처럼 타이어는 단순한 고무제품을 넘어 능동적으로 주행 안정성을 보완하는 지능형 장치로 진화 중이다. 즉, 타이어가 도로 상황을 '직접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 현상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독일과 일본 완성차 업계는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 억제를 위해 AI 기반의 차량 제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기존 ESP가 단순히 바퀴에 제동을 걸어 미끄러짐을 억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들의 최신 기술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주행자의 습관과 노면 조건을 예측하는 형태다. BMW는 고성능 모델에 '액티브 토크 벡터링'을 적용해, 코너링 중 뒷바퀴에 토크를 차등 분배해 차량 뒷부분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오버스티어를 미리 잡아준다. 일본 토요타 역시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해, 차량이 곡선에 진입하기 전 최적 속도와 조향각을 스스로 조절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 보정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제어라는 점에서 혁신적 기술 접근이다.

자동차와 타이어, 전자제어 기술이 함께 맞물리면 주행 안정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리고 타이어는 가장 먼저 자동차와 전자제어 장치에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감각기관으로 바라봐야 한다. 타이어의 혁신적인 진화는 90° 커브 길과 같은 변곡점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다.

Text. 편집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할을 다한 건물들은 종종 방치되거나 철거된다. 하지만 과거의 기능이 사라졌다고 해서 가치마저 소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하면, 공간은 전혀 다른 생명을 얻게 된다.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시도는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과거의 흔적을 존중하며,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 올린 공간의 터닝포인트를 엿볼 수 있는 발상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버려진 시간을 문화로! 공간의 터닝포인트, 두 번째 전성기









부산 F1963

산업의 기억을 품은 공장에서 문화 놀이터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자리한 F1963은 원래 국내 굴지의 와이어 제조 공장이었다. 1963년 가동을 시작해 자동차, 건설, 조선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강철선을 생산하며 부산 경제를 이끌었다. 반세기 동안 쉼 없이 돌아가던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 거대한 크레인 소리는 지역 산업의 심장박동처럼 들렸다. 그러나 2008년 생산 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은 멈췄고, 거대한 구조물만 남았다.

그렇게 방치된 지 8년여가 지난 2016년 변화가 시작됐다. 그 계기는 '철과 시간'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이 필요했던 행사 기획 관계자들이 와이어 공장을 발견하게 된 것! 철거 대신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결정한 후, 높은 층고와 철골 구조, 녹슨 기둥과 같은 산업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남겼다. 과거 공장 풍경을 남겨둔 대신에 채광과 조명을 개선하고, 단열과 동선 구조를 보완해 대규모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현재의 F1963라고 불리는 이곳은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내부에는 대형 미술관, 소규모 갤러리, 공연장, 북카페, 독립서점, 공방,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한쪽에서는 현대 미술 전시가, 다른 한쪽에서는 인디 밴드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1,000평가량의 넓은 홀은 대형 설치미술이나 미디어아트 전시에 최적화되어 있다. 철골 구조물 사이로 투사되는 영상과 음향 효과는 관람객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준다.

매년 개최되는 'F1963 아트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여하며, 부산의 문화력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운영 첫 해 방문객은 30만 명을 넘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유산 보존과 문화 활성화를 동시에 이룬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천 아트벙커B39

쓰레기 소각장에서 도심의 랜드마크로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아트벙커B39는 1995년 준공된 쓰레기 소각장이었다. 하루 16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했지만, 환경 기준 강화와 주민 민원으로 2010년 가동이 중단됐다. 거대한 소각로와 높이 45m의 굴뚝만 남은 채, 공간은 버려졌다.

부천시는 이 산업 유산을 없애는 대신 예술 공간으로 변신시키기로 했다. 소각로, 집진기, 컨베이어 벨트는 그대로 두고 이를 전시와 공연 무대로 재해석했다. 콘크리트 벽면에는 영사 투사 장비와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 몰입감 있는 전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의 높은 층고와 독특한 구조를 활용해 대규모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 실험 공연을 효과적으로 시연하기도 했다.

현재 아트벙커B39는 '환경 재생(복원, 순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예술 활동에 녹여내고 있다. 소각장의 구조를 활용한 창작 스튜디오 운영,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와 공연,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와 연계한 미디어아트·영화 프로그램 상영 등 공간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소각로 투어' 프로그램은 과거 쓰레기 소각 과정과 현재 문화 공간으로의 변신을 비교 체험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방문객들은 산업 시설 특유의 차가운 질감과 예술 작품의 따뜻한 감성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야외 광장에서는 주말마다 플리마켓과 거리 공연이 열리고, 야간에는 건물 외벽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된다. 굴뚝은 조명 장식으로 변신해, 멀리서도 이곳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D-Alive
D-Archive




Where_is_the_exit?
There_is_the_exit
How_do_I_exit?



대구 수창청춘맨숀

폐아파트에서 청년 예술가들의 꿈의 공간으로

대구 중구의 수창청춘맨숀은 1970년대에 지어진 공무원 관사 아파트였다. 총 5층 규모의 건물에는 당시 수십 가구가 살았으며, 대구 시내에서 가장 현대적인 주거 시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주거 환경이 급속히 변화했고, 2000년대 들어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2014년 마지막 세대가 이주한 뒤 건물은 빈집이 되었고, 낡고 위험한 흉물로 전락했다.

대구시는 철거 대신 보전과 재생을 선택했다. '버려진 공간을 예술의 무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과 전시를 제공하는 장소로 재생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내부 리모델링을 최소화해 옛 아파트 구조와 생활 흔적을 그대로 남겼다. 대신 각 세대를 작업실, 전시실, 공방으로 개조했으며, 계단과 복도에는 설치미술과 벽화를 더해 이동 자체가 관람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지금의 수창청춘맨숀에는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방문객은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작품을 감상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옥상은 야외 전시장 겸 공연장으로 활용되어, 저녁이면 버스킹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 영화가 상영되기도 한다. 매년 봄·가을에는 '청춘페스티벌'이 열려 작가들의 작품 판매, 핸드메이드 마켓, 라이브 공연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 인근 골목길까지 공연 무대와 마켓이 확장되면서, 그날만큼은 주변이 하나의 큰 예술 축제장이 된다.

이처럼 수창청춘맨숀은 전시뿐만 아니라 워크숍, 플리마켓, 독립영화 상영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 열린 문화 플랫폼이 됐다. 방치됐던 건물이 '청년 창작자의 성지'로 변모하면서, 도심의 문화 지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Text. 편집실 **Photo.** 임동욱



서로 다른 우리가 만드는 큰 시너지
한국고객만족실 버크만 진단

이번 가을호에서는 특별한 팀이 버크만 진단을 위해 모였다. 바로 국내 AS를 담당하며 고객 서비스를 기획 및 운영하는 한국고객만족실이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근무 중인 한국고객만족실은 팀워크와 소통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의 필요성을 느끼고, 더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버크만 진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얻은 한국고객만족실은 고객 만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뤄가는 끈끈한 팀이 될 예정이다.

BIRKMAN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귀한 시간

한국고객만족실의 전체 구성원은 13명. 그 중 6명은 마곡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권역별로 서로 떨어져 근무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서적 거리도 생기기 쉬운 구조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고객 요청을 응대하면서도 정작 팀원 간에는 얼굴을 마주하거나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러한 한국고객만족실 구성원들을 위해 개인의 성향과 관계 방식을 알 수 있는 버크만 진단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 13명의 구성원은 각자 개인 사전 검사 후 더넥센유니버시티 대회의실에 모였다.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 반갑게 인사를 나눈 이들은 사전 검사에 따른 개인별 결과 리포트를 살펴보며 강의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다르다는 것의 가치, 퍼즐처럼 맞춰가는 우리

버크만 진단을 통해서는 개인의 흥미, 평소 행동, 욕구(타인에게 바라는 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행동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분석 결과, 구성원들은 기술과 문제 해결, 신체적 활동, 과학적 탐구, 창의적 아이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보였다. 기술과 문제 해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구성원들은 빠르게 문제를 풀어가고, 결과





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예술 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구성원들은 팀 분위기를 조화롭게 만들며 시각적 표현과 아이디어 발현에 강점이 있다.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조직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깨는 강사의 설명이 덧붙여 진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 가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팀의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각 개인의 소통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평소 행동과 욕구(타인에게 바라는 태도)에 대한 진단 결과 설명도 이어졌다.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과 표현도 각각입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맞는 화법을 사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사는 서로가 가진 소통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구성원들의 평소 행동은 결단력 있는 '에너자이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공감적 리스너',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생'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소통 방식으로는 결론을 먼저 듣고 싶어하는 유형, 충분한 시간과 존중을 원하는 유형, 구체적 내용과 체계가 있을 때 신뢰를 가지는 유형, 일에 대한 자율성과 결과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유형 등 다양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서로의 성향과 욕구에 맞는 화법, 대응 전략을 배울 수 있었다. 또 사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구성원, 반대로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 좀 불러줘~'라는 마음을 지닌 구성원도 있어 깜짝 놀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이어 일 처리 방식과 문제 해결 스타일도 살펴볼 수 있었다. 김태형 파트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동시에 팀원들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리더 유형으로 나타나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팀 구성원 전체적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솔직한 대화를 선호했고, 그중, 사교적인 성향으로 따뜻한 소통에 힘쓰며 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구성원도 있었다.

우리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

이번 진단을 통해 팀원들은 자신과 동료의 흥미, 행동, 욕구 차이를 이해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서로 다른 성향은 때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오히려 성과를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고객만족실은 앞으로도 개인의 고유 특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더욱 건강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겼다.

Mini interview



김태형 파트장

리더로서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 개개인의 성향도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개별 성향을 맞춰주려는 노력을 좀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변상식 책임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색다른 진단 방식이 신기했습니다. 파트장님이 칭찬을 좋아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와 같이 나 자신과 더불어 팀원들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유민 책임

저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각자 성향에 맞춰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못한 진단을 발견했을 때 신기했고, 나를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동호 사원

전체 팀원분들은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 때만 만날 수 있어 아쉬웠는데, 오늘 같은 특별한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예진 사원

입사한 지 6개월가량 되어 이번이 팀원분들을 세 번째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대화도 메신저나 통화로만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알아가는 자리가 된 것 같아 좋습니다.



성혜지 사원

평소에도 동료에게 업무 내용 등을 많이 공유하는 편인데 진단 결과도 이에 맞게 나와 신기했어요. 나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된 것 같고, 동료와도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Text. 편집실

생각의 시야를 새롭게 밝히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뉴스레터를 소개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쏙쏙 흡수하기란,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미션 임파서블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 것!
많은 양의 정보를 보기 좋게 큐레이팅한 뉴스레터만 있다면, 틈새 시간만 투자해도 생각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영어부터 경제와 여행 트렌드까지 관심사별로 골라 보기 좋은 뉴스레터들을 소개한다.



영어

월요일 아침의 잠든 뇌를 깨워줄 영어 선생님 SUNDAY ENG CLUB

발행: 매주 월요일

트렌드 따라 잡기와 영어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뉴스레터다. 흥미를 자극하는 주제의 최신 해외 기사 내용을 소개하며 헤드라인 속에 담긴 영어 문장과 그 문장을 둘러싼 어감, 맥락, 해석을 함께 풀어낸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한글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술술 읽히는 것이 장점. 최신 해외 트렌드를 알려 주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폭넓게 습득하면서 영어 표현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영어와 친해지는 것이 먼저 필요한 이들이라면 지금 당장 구독!

AI

흥미로운
인공지능 이야기

먀 AI 뉴스레터

발행: 매주 화요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트렌드에 나만 뒤처지고 있을까 봐 조바심이 나다가도 어려운 내용에 머리가 지끈한다면, <먀 ai 뉴스레터>를 주목해 보자. 매주 AI 관련 기술을 하나씩 소개하며 이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예상되는 변화, 사회적 쟁점 등을 함께 소개한다. AI에 대한 깊은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AI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글 딥마인드, 지구를 조건 검색하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 'GPT, 왜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등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 지식의 폭이 한층 넓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구독하러 가기

비즈니스

글로벌 기업의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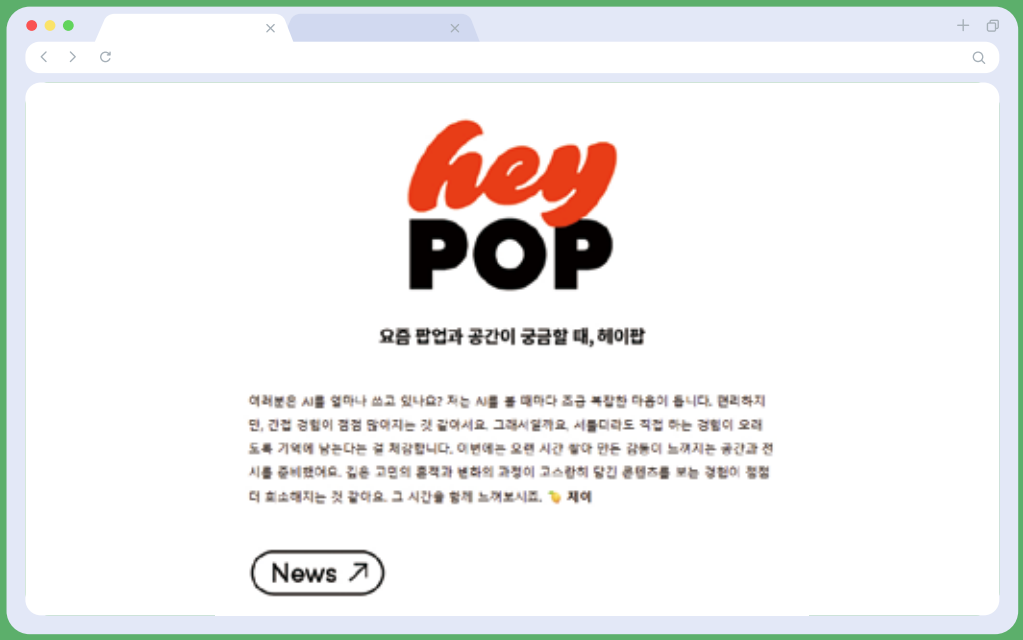
이오레터

발행: 매주 금요일

'인스타그램 창업자의 제품 성공론', '팔란티어 CEO가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은?', '전 세계가 사랑한 테트리스, 창업 초기엔 이랬다' 등 다양한 아티클이 가득하다. 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CEO가 경험을 통해 얻은 뼈저린 교훈이나 실전에 강한 마케터들의 실용적인 팁들은 분야는 달라도 조직 생활이나 업무에 힌트를 주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는 물론,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한 번쯤 접해볼 만하다.



구독하러 가기



구독하러 가기

문화생활

일상에 가벼운
전환이 필요한 순간

헤이팝 레터

발행: 매주 목요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반복되는 일상에 환기가 필요할 때, 전시는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 된다. 새로운 공간에 방문하는 것 자체로 리프레시가 되고 메말랐던 영감이 샘솟기 때문이다. <헤이팝 레터>에서는 최신 전시 또는 팝업 소식뿐만 아니라 축제와 여행지, 트렌드한 공간까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신상 카페나 핫한 전시관 등 새로 오픈한 곳은 꼭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트렌드세터라면, 더욱 눈길이 갈 콘텐츠들로 가득하다. 또한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로컬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더욱 추천한다.



부동산

부알못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부딩

발행: 매주 화·금요일

부동산 관련 소식을 꾸준히, 빠르게 접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주목! <부딩>은 많은 이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하는 부동산 뉴스레터로, 어려운 부동산 용어와 각종 이슈를 쉽게 정리 요약해 알려준다. 경제 신문은 어렵고 책은 펼쳐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부동산 입문자들에게 더욱 추천한다. 회차마다 간단한 용어 해설과 함께 실생활과 바로 연관된 내용을 추가로 알려주니 부담스럽지 않게 경제 기본 개념을 쌓을 수 있다.



구독하러 가기

시사

하루 10분 투자로
주요 뉴스 섭렵하기

점선면

발행: 매주 월~금요일

다양한 사회 뉴스 전반을 다루는 종합 시사 뉴스레터로, 경향신문에서 발행 중이다. 뉴스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콘셉트다. '오늘의 점선면' 코너에서는 주제가 되는 기사를 분석, '에디터 PICK' 코너에서는 에디터가 뽑은 좋은 기사를 소개, '오늘의 브리핑' 코너에서는 그날의 이슈를 간결하게 설명한다. 문화예술 영역의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탐구', 책 또는 문화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잼선면' 등도 흥미롭다. 단순히 기사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구독하러 가기

STATION 1

TIRE TECH	CULTURE TRIP	문화多방	밥 한끼 프로젝트
26	30	34	38

CS 케이스 스터디 40
NEXEN CSR 44
내돈내산 46

파란 가을 하늘처럼 눈부신 넥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별한 연극 한 편으로 금요일 밤을 멋지게 장식한 넥센인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사색,
언제 만나도 반가운 동료와의 뜻깊은 식사 에피소드를 만나보세요.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응대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고객만족실의 사례, 으쌰으쌰 신규 입사자들의 화이팅 넘치는
농촌봉사활동과 넥센인들이 추천하는 삶의 질 수직상승
다이소 꿀템까지! 시원한 바람처럼 잠깐의 환기를 줄 수 있는
소식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듭니다.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왼쪽부터
김영주 과장, 박명석 점장, 윤창욱 대리

안심할 수 있는 선택, 믿고 찾는 매장

타이어테크 광주본점

광주광역시 북구에 새로운 타이어테크 매장이 문을 열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한 타이어테크 광주본점은 주거 밀집 단지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적인 유리함과 더불어 최신식 장비를 바탕으로 더욱 섬세하고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NO.1 매장이 되겠다는 힘찬 포부로 출발한 광주본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입지적 강점과 최신 장비로 차별화된 경쟁력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타이어테크 광주본점은 주거 밀집 구역일 뿐만 아니라 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과도 맞닿아 있다. 다양한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이 있는 만큼 무료 안전 점검 이벤트와 할인 혜택 등 여러 프로모션과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매장 내부의 효율적인 구조와 최신식 장비도 돋보인다. 광주본점은 얼라인먼트 존과 타이어 교체 존을 분리해 편리하고 깔끔한 작업 동선을 구축했으며, 오차를 최소화하고 미세 불균형까지 보정 가능한 3D 휠 얼라인먼트 장비 및 자동식 휠밸런스기, 고인치 타이어까지 폭넓게 커버 가능한 반자동 탈착기를 도입해 정밀함을 극대화했다. 고객들은 이 모든 정비 장면을 바로 옆의 유리벽이 설치된 고객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소통에도 용이하다.









7단계 서비스, 숫자로 말하는 신뢰

광주본점은 접수부터 진단, 견적, 작업, 검수·시운전, 결과 리포트, 사후 안내까지 7STEP 표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과정마다 사진과 데이터 리포트를 고객에게 직접 공유해 '왜 이 작업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설명한다. 진단은 수치·사진·영상으로 투명하게 공유하며, 교체·수리·유지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해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 철학은 '숫자로 설명하고, 필요 없는 건 권하지 않는다'입니다." 박명석 점장의 원칙은 단순 명료하다. 불필요한 교체 권유 대신 예방 정비 시점을 미리 안내하면서 장기적인 신뢰를 만든다. "단기 매출에만 몰두하기보다 고객의 신뢰를 먼저 얻으면, 자연스럽게 재방문과 소개가 이어집니다." 볼트 체결을 임팩과 토크렌치 2단계로 관리하고, 시운전 후 이상이 있을 때는 무상 재점검까지 책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넥센타이어의 영업 직원으로 10년가량 근무했기에 누구보다도 넥센타이어 제품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박명석 점장은 '안전의 시작점은 타이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을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시니어 테크니션 김영주 과장, 주니어 테크니션 윤창욱 대리와 함께 공유하며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 있다.

최고의 서비스가 있는 곳에 고객의 발걸음은 이어진다

광주본점의 향후 목표는 단순한 타이어 매장을 넘어서는 것이다. 예약 시스템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퀵 서비스 라인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엔진오일·배터리 등 소모품 서비스를 확대하고, 계절별 안전 점검 프로그램이나 교통 안전 캠페인 등도 펼쳐 광주를 대표하는 서비스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 고객들이 믿고 찾는 든든한 정비 파트너가 될 광주본점의 성장이 무척 기대된다.



타이어테크 광주본점
광주 북구 무등로 59 / 062-412-0080

일교차로 공기압 변동이 커지고
장거리 주행이 늘어나는 계절!
가을철 차량 및 타이어 관리법 Tip 5

공기압 체크
계절 변화에 따라 압력이 달라지므로
최소 2주~한 달에 한 번은 점검할 것

트레드 마모 체크
빗길 제동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3mm 이하일 경우 교체를 권장함

편마모·균열 체크
특정 부위만 닳거나 미세 균열이 있으면
얼라인먼트나 교체가 필요함

이물질 체크
못이나 돌 같은 이물질이 있다면
꼭 제거해서 안전을 지킬 것

TPMS 체크
경고등이 꺼져 있어도 수치가 들쭉날쭉하면
센서 배터리 점검 혹은
밸브 시스템 교체를 고려할 것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이색 문화 체험! 식탁 앞에서 펼쳐진 특별한 연극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선선해진 즐거운 금요일 저녁! 넥센인들이 특별한 연극 관람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랑하는 아내, 회사 밖에서도 교류하고 싶었던 동료들과 함께한 이날 퇴근 후의 시간은 색다른 추억으로 장식됐다.



눈과 입의 즐거움, 모두 만족시켜 드립니다

주말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가 한층 더 느껴지는 합정역 인근 소극장. 호기심 어린 눈빛을 장착한 넥센인들이 하나둘씩 극장 안으로 도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극장 안의 풍경이 일반적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일렬로 배치된 좁은 좌석 대신 자리를 채우고 있는 커다란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오늘의 이벤트 장소는 바로 음식을 먹으며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다이닝 씨어터다. 각자 원하는 좌석에 자리를 잡고 주위를 둘러보니 반가운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보인다. 활기찬 인사가 오고 가는 가운데, 고소한 치킨과 감자튀김, 푸짐한 우삼겹 볶음, 한 주의 피로를 날려줄 시원한 맥주와 무드 있는 와인 등 다채로운 음식들이 테이블마다 서빙된다. 식사를 곁들인 연극 관람이란 이색적인 체험을 앞두고 참여자들 모두 호기심과 설렘으로 들뜬 표정이다.









단쓴단쓴, 쓰디 쓴 인생에도 달콤한 순간은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렁찬 배우의 목소리와 함께 연극 시작 전 흥을 돋워줄 간단한 다트와 뽑기 게임이 펼쳐지고, 드디어 암전되는 무대. 연극의 제목은 <진짜 쏜다?!>로,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마음 먹은 30살 청년 세 명의 셀프 엔딩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D-DAY를 정해 놓고 죽는 방법을 고민하는 세 주인공 블랙, 그린, 레드는 각자의 이유로 삶이 고달프다. 하지만 찬란한 마지막을 위해 꿈을 이루고 나서 죽기로 한 이들. 그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쌓이며 극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점점 스토리에 몰입하는 넥센인들. 잠시 음식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모두들 무대에 집중한다. 비슷한 나이대의 넥센인들이 많았기에 꿈과 사랑, 우정 등 삶의 고민을 놓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 주인공의 이야기는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함께 만든 추억, 오늘도 하나 플러스!

힘찬 박수와 함께 연극이 종료되고, 극의 여운을 간직한 채 배우들과의 포토타임도 이어 간다. 든든히 채운 배와 다르게 피곤함은 덜어낸 넥센인들의 얼굴이 한층 더 밝아졌다. 알찬 한 주를 마무리한 금요일 저녁이었기에 더욱 홀가분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연극 이벤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여서 더욱 오래도록 기억될 오늘의 시간은 사보 속에도 특별한 페이지로 남았다.



Mini interview



유한솔 사원 / 한국영업지원팀

아내와 시원한 실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이벤트에 신청했는데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위치라 좋았고, 연극을 보면서 식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어 편하면서도 알차게 즐긴 데이트였습니다~ 나가서 인형뽑기까지 하고 귀가할 예정이에요!



장윤정 사원 / 글로벌법인영업2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긴 연극 한 편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식사와 문화생활을 같이 즐긴다는 점이 좋았고, 자리도 넓어서 연극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조휘라 사원 / 국제협력파트

동료들과 퇴근 후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편한 자리에서 음식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김은선 사원 / 국제협력파트

극 내용에 공감가는 포인트가 많아 스토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 때문에도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배우분들이 직접 서빙까지 해주는 점이 신기하고 색달랐습니다.



김현희 선임 / CRM팀

가까운 무대 덕에 생생하게 연극을 볼 수 있어 좋았고 음식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색다른 시간으로 채웠기에 특별한 저녁을 보낸 금요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김지우 사원 / 한국영업지원팀

오늘 남자친구와 같이 본 두 번째 연극이었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음식과 연극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았고, 일반적인 소극장보다 좌석이 편한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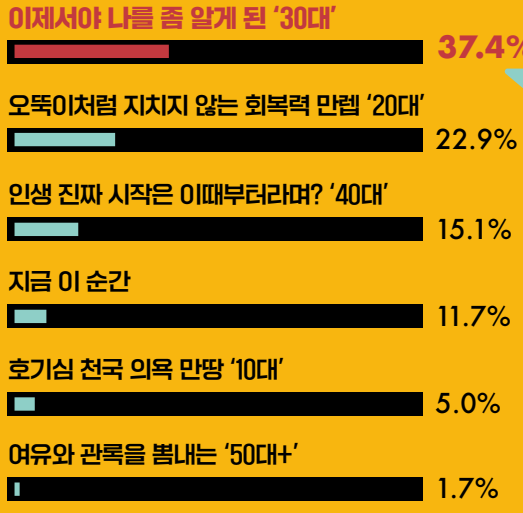


인생에서 만나는 터닝포인트 90°

올해의 나, 어디로 가고 있나요?

설문기간: 8월 28일~9월 1일
참여자: 179명

Q1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시기는?



기타 6.1%

넥센인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인생의 터닝포인트 시기는 '30대'예요. 회사에선 책임과 역할이 훌쩍 커지고, 집에선 삶의 틀이 제법 단단해지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안정만 바라보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무리하게 도전만 하다 보면 금세 지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경험의 질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보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취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전쟁터에 던져진 신병 같은 낯설고 강렬한 경험
전재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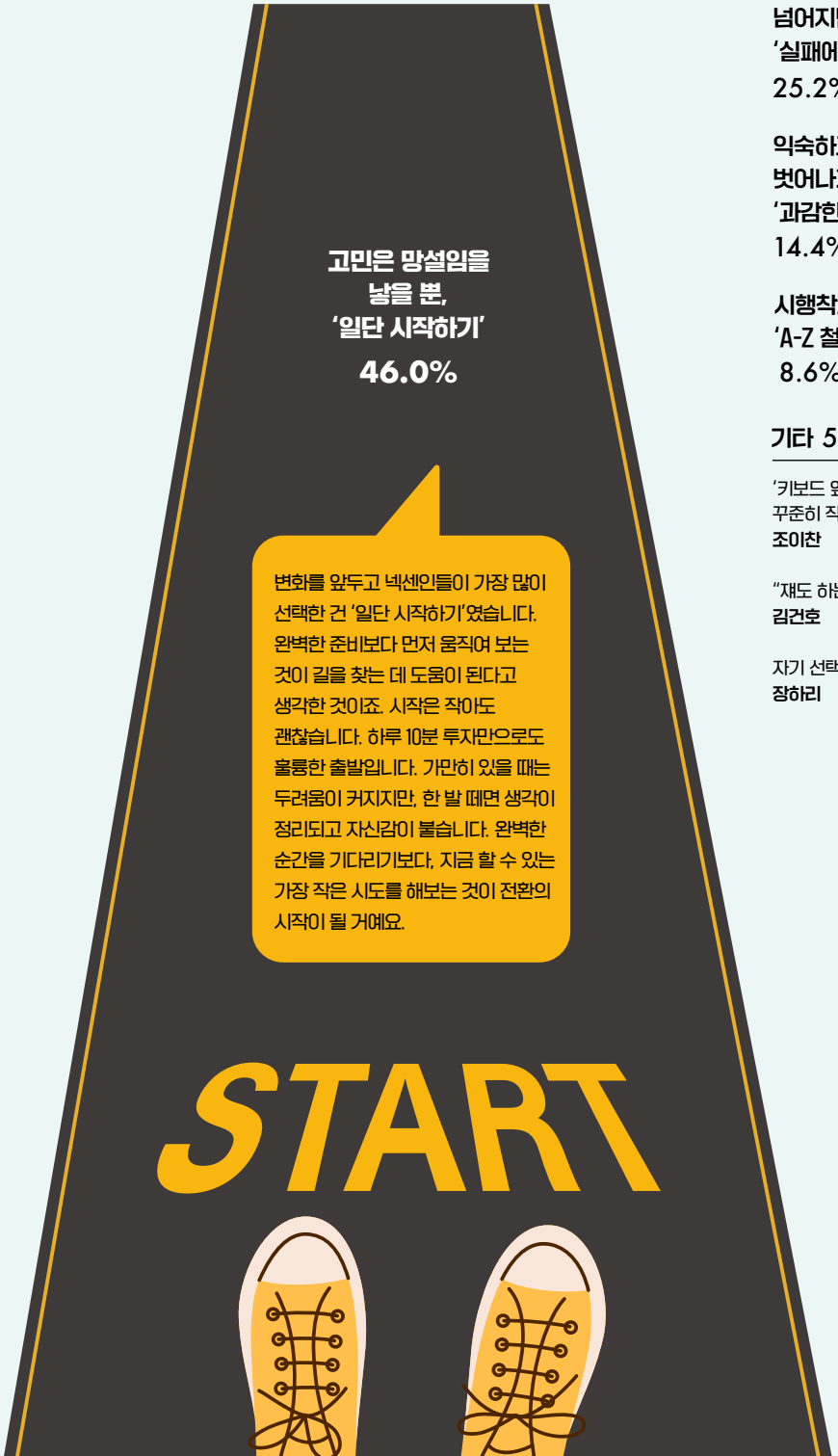
넥센타이어로 이직한 2019년
송민석

결혼하는 순간, '나'에서 '우리'로 전환될 때
김병희

가치관과 정서적으로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결혼
안혜진

날 닮은 예쁜 아이가 태어난 날, 가족의 탄생
유민

Q2 새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행동은?



넘어지면 다시 하면 돼~
'실패에 대한 관용'
25.2%

익숙하고 편한 것에서
벗어나기!
'과감한 변화'
14.4%

시행착오를 줄이는
'A-Z 철저한 준비'
8.6%

기타 5.8%

'키보드 앞에 앉기'와 '태블릿 펜 잡기',
꾸준히 작업하는 습관
조이찬

"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는 마음가짐
김건호

자기 선택을 믿고 따르기
장하리

Q3 삶의 롤모델 삼고 싶은 인물 유형은?

포기란 없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평생 성장가'
40.3%



넥센인들의 롤모델 1위는 '평생 성장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배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익숙한 업무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평생 성장가'는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에너지를 주변에도 전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길! '거침없이 직진하는 모험가'
25.9%

과감히 진로를 바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인생 항로 전환가'
14.4%

실패 후 더 크게 도약하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13.7%

기타 5.8%

구체적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계획적 도전을 실천하는 사람
탁세원

자유로운 영혼처럼 사는 동료, 항상 웃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이영남

묵묵히 자기 일을 이어가는 소시민
김상문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내는 '루틴 집착 거북이'
진예진

Q4 갑작스러운 터닝포인트! 당신의 선택은?

잠시 멈춰서 '나만의 답을 찾을 시간을 갖는다'
39.6%

예상치 못한 변화가 오면 바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넥센인들은 '잠시 멈춤'을 가장 많이 선택했어요. 서두르기보다 상황을 가다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멈춤은 물러섬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죠. 다만, 너무 오래 머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하는 게 좋아요.



계획보다 직감을 믿고 '과감히 질러본다'
28.1%

혼자서 결정하기 보다 '주변의 경험담과 조언을 참고한다'
20.9%

위험을 줄이는 '안전한 우회로를 택한다'
7.9%

기타 3.6%

돌아가는 길이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길을 선택
서용준

실패 확률을 점검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
김건호

계획을 세우고 과감히 믿고 나아가기
문진석

일상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코어에 힘 주고 허리 펴기
김은선

새벽에 뛰어 보면 참 좋은 점이 많았는데,
다시 시작!
이영남

취향과 다르게 옷을 사거나
헤어스타일 바꾸기
김미란

주변 사람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기
김동우

컬러풀하고 디자인이 독특한 양말 신어 보기
길찬호

천국의 계단 10분씩 늘리면서 뿌듯함 느끼기!
전지완

극한의 대문자 J로서 하루만, 한 번만,
P처럼 행동해 보기!
김지연

그때그때 기분에 따른 음악
플레이리스트 편집하기
이용진

오른손잡이지만 왼손 써 보기
손형욱

하루 중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무실 책상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김미정

안 먹던 메뉴 먹어 보기
권재원

방 가구 배치 바꿔 보기!
조연정

모르는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기
이유진

"감사합니다" 자주 말하기
주의선

평소 마시던 밀크티에 샷 추가해 보기
조환희

매일 새로운 주제로 도장 깨기하듯
하루 보내기!
이주영

기존에 잘 안 읽던 장르(시, 에세이)
읽어 보기
김재섭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하늘을 한 번 더 보기
김지우

내비게이션 안 보고 운전하기
백승주

소중한 동료에게
도시락과 함께 따뜻한 진심을 전합니다~

선배와 후배의 훈훈한
한끼 프로젝트



밥 한끼 파트너
제품평가팀
(CP)제품평가파트
봉형근 조장

이벤트 신청자
제품평가팀
(CP)제품평가파트
이찬규 사원

평소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 사보에 직접 나오게 되어 한끼 파트너와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평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봉형근 조장님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밥 한끼 프로젝트를 신청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조장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계신 선배님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한번은 퇴근 후 여름 땡볕 아래 러닝을 함께 했었는데, 그늘 하나 없는 35도의 날씨 속에서 "일단 뛰자, 남자라면 끝을 봐야지"라며 목표한 거리를 완주했습니다. 그때 조장님의 색다른 면모를 보며 더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MISSION
으쌰으쌰! 다정한 어깨동무로 동료애를 다져주세요~



밥 한끼 파트너에게 답장이 왔어요!

이찬규 사원의 이벤트에 신청하자는 말에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이찬규 사원은 매사에 항상 긍정적인 친구이며 우리팀 분위기를 UP 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쭈~욱~~ 선후배들과 친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나누는 한 끼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시간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정(情)의 통로가 되어준다. 각자 도시락을 앞에 둔 넥센인들은 평소에는 나누기 어려웠던 옛 추억도 공유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짠단짠 LA 갈비처럼
케미 좋은 우리!



2012년 입사 후, 입문교육을 함께 받으며 인연을 맺은 동기들이 세월이 흐르며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같은 양산공장에서 근무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밥 한번 먹자"는 약속을 이번 <밥 한끼 프로젝트>를 통해 드디어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끼 파트너인 이창식 책임은 입사 후 창녕에서 근무하다가 양산으로 발령받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게 많았던 시절,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업무뿐 아니라 결혼과 육아 선배로서 인생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잊은 채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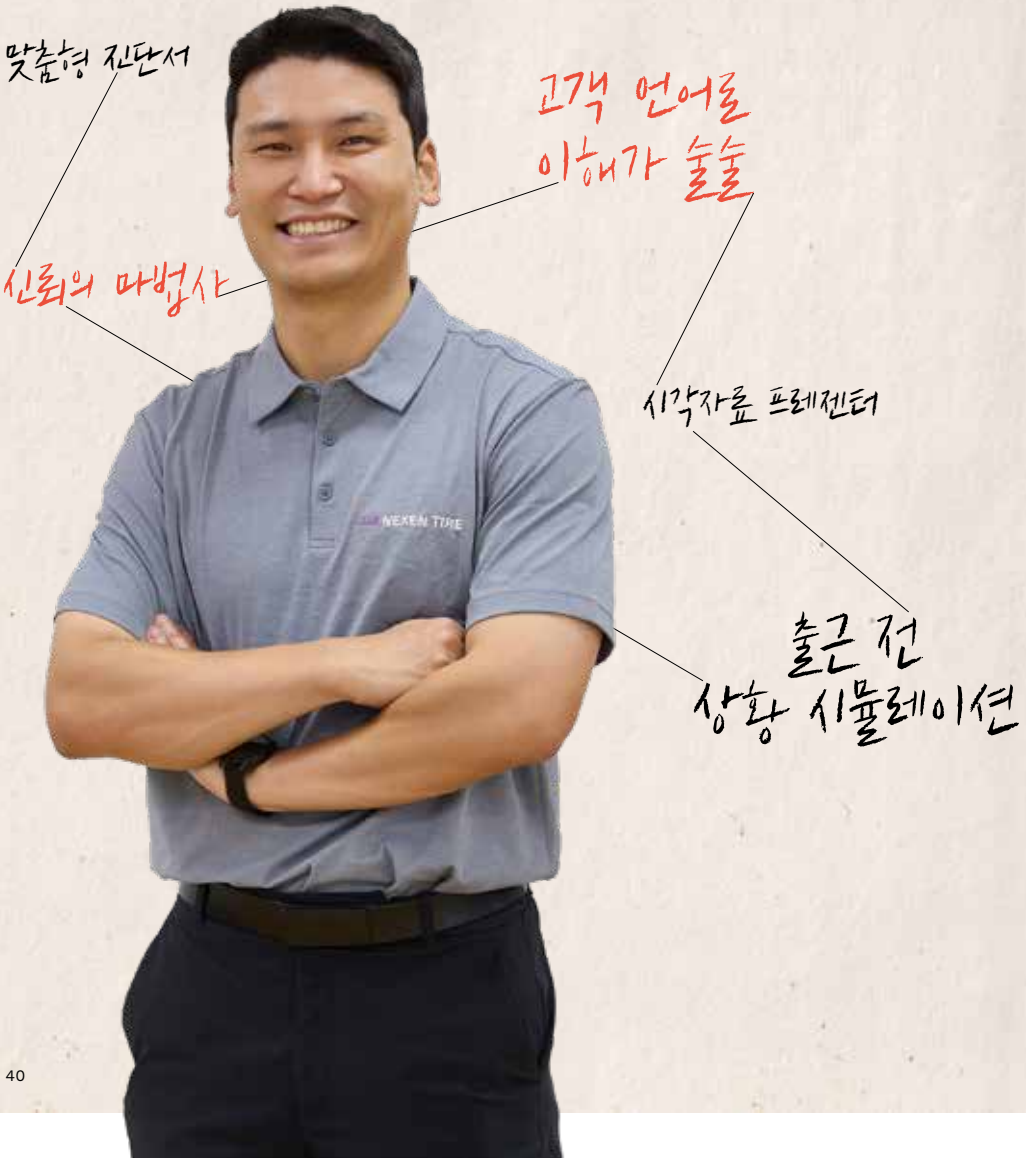
밥 한끼 파트너에게
답장이 왔어요!

탁세원 책임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다는 것, 이런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사실까지 두 번 놀랐습니다. 세원 책임은 몇 안 남은 동기 중 제가 가장 아끼는 동생입니다. 서로 바쁘지만 종종 안부를 나누며,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동료로 남고 싶습니다. 매번 먹는 회사 밥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락을 함께하니 색달랐고, LA 갈비구이가 정말 맛있네요.

한국고객만족실 우수 CS실장이 전하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응대 기억에 남는 서비스!

넥센타이어의 AS를 책임지며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대구의 한 무더운 여름날,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솔선수범한 박지환 실장. 그리고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행한다는 고객의 말에 퇴근 시간이 임박해도 타이어 점검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김동민 실장이다. 이들의 서비스에는 매뉴얼을 넘어서는 '진심'과 '신뢰', 그리고 타사와 차별화된 '전문성'과 '기술력'이 녹아 있다. 두 사람의 서비스에 감동 받은 고객의 편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문제 해결을 넘어, 신뢰를 쌓는 동반자
대구지구 박지환 실장



[딩동! 고객 칭찬글이 왔어요!]

저는 수십 년간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심이 담긴 서비스가 주는 울림을 잘 알죠. 그래서 대구 담당자 박지환 실장의 응대는 더욱 특별했어요. 그는 고객이 원인이나 AS 과정을 궁금해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세심하게 설명했고, 매장 직원들이 마무리한 뒤에도 스스로 다시 점검하며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넥센타이어 제품과 서비스의 강점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에 담긴 깊은 애사심도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서비스를 해 온 제 눈에도, 본받을 만한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박지환 실장은 서비스의 본질을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 말한다. 고객을 설득하려 들기보다, 먼저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설명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다.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며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의 힘입니다. 불만 뒤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과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답을 찾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한 제품 교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말 중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노하우 1.
기술적인 설명을 '고객 눈높이 언어'로 바꿔라.

고객 중에는 차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고객도 많습니다. 이런 고객을 위해 말보다는 자료를 이용해서 **실제 타이어 상태를 직접 보여주거나 유사한 사례를 활용해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기술 용어는 최대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 impact bulge(코드 절상)'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외부 충격에 의한 코드 끊김' 등의 비유로 고객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노하우 2.
철저한 분석! 단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설명

10년 넘게 자동차 경정비를 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량 관리 및 주행 습관을 상세히 파악한 뒤,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속이 잦은 도심 주행에서 전기차 특유의 토크와 회생제동 시스템이 타이어 마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고객이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은 꼼꼼히 듣고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죠. 이런 방식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고객의 신뢰를 얻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 '기술과 고객 사이의 연결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하우 3.
고객 불만 시,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응대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오시는 고객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설명도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합니다. 한 고객이 "타이어 마모가 너무 빠르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불안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라는 공감의 한마디를 건네자 고객도 조금씩 진정하셨죠. 일이 마무리됐을 때는 "이렇게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처음이다. 믿음이 생긴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불만은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역지사지의 달인,
CS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내강사

강북지구 김동민 실장



[딩동! 고객 칭찬글이 왔어요!]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 말에 무더운 날 비지땀을 흘리며 한걸음에 달려와 준 김동민 실장에게 감사했습니다.
불만의 소리에도 웃으며 응대해 주셨고, 본인도 어린 아이가 있는 학부모라고 하시면서 타이어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분처럼 열정적인 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감동적인 서비스로 넥센타이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김동민 실장은 고객 응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내가 고객이라면 어떻게 느낄까?" 그는 친절과 신속함은 기본이며,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단순히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신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객들에게 자주 듣는 말 중에는 무엇보다 "빠른 처리 덕분에 기분 좋게 휴가를 다녀왔다", "중요한 출장 미팅을 무사히 마쳤다"와 같은 칭찬과 감사의 말들이, 저를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한국고객만족실은 최전선에서 고객과 마주하기 때문에 넥센타이어의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내 강사로서 내부에도 CS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하우 1.
불만 발생! '내가 고객이라면?' 마음으로 응대

고객 불만 유형은 다양합니다. 고객 과실로 인한 외상·관통 같은 단순 손상부터 소음이나 진동 같은 감성 불만까지! 사용하던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고, 제조사에 불만을 제기했을 때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만약 CS 담당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다시는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 행동과 언행에 따라 고객이 떠날 수도, 넥센타이어의 충성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하우 2.
고객이 원하는 바! 최대한의 수용 태도 必

예를 들어, 얼마 전 강원도 정선군에서 거주하는 고2 자녀의 학부모 고객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자녀 케어와 근무 일정 때문에 이른 아침 거주지에서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고객의 편의성과 맞춤 상담을 위해 요청한 곳에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렸습니다. 고객이 이를 알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고객의 Needs를 최대한 수용하면 만족을 넘어 충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노하우 3.
새로운 방식! 고객만족 프로세스에 적극 활용

예전에는 상담 종료 후, 해피콜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콜센터에서 만족도 설문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응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CS 직원의 만족도는 물론, 고객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할 기회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설문 방식을 도입했고, 그 결과 고객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평가를 바탕으로 CS 직원의 업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한층 나아진 서비스로 고객께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ext / Photo. 마곡기업문화팀 유재훈 책임

수확의 기쁨을 나누다! 신규 입사자들과 함께한 넥센타이어 '농촌봉사활동'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다가온 가을의 첫 시작을 알리는 9월. 영농철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 교류를 실천하고자 더넥센유니버시티 신규 입사자 37명이 파주 민통선 마을에 있는 사과 농가에 방문했다.



2023년부터 농협중앙회와 함께해 온 농촌봉사활동이 벌써 6회차를 맞이한 가운데, 역대 최다 인원으로 참여한 이번 활동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입사자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었다. 참여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파주로 이동한 뒤, 본격적인 작업 준비를 마쳤다.



당일 많은 비가 내려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여자들은 손길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참여자들은 올가을 수확한 많은 양의 사과를 선별하고 상자에 담아 보관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농협 관계자들은 체력 소모가 크고 시간이 드는 작업이라 염려했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한 결과, 계획한 시간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신규 입사자들은 입사 후 업무를 배우는 데 매진하느라 그동안 함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날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좋았다는 후기를 전했다. 이번 활동은 어느 때보다 값진 사회공헌 활동이었으며, 내년에도 신규 입사자들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으로 농협중앙회와 인연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

Text. 편집실

작지만 내 삶을 편리하게 바꿔준 특별한 아이템! 넥센인들이 추천하는 다이소 꿀템!

한번 입장하면 시간이 순삭되는 마법의 공간, 다이소! 부담 없는 가격이지만 퀄리티는 제법이며, '이거 어디서 사야 하지?'하고 고민되는 사소한 물건들까지 해결해 준다. 넥센인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준 다이소 꿀템 후기를 읽다 보면, 오늘 저녁 퇴근길엔 다이소 쇼핑에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



REVIEW

자취생의 인생템,
삶의 질 수식 상승

YP생산1팀 정련파트 박찬미 사원

붙이는 순간 옷장 정리 끝!
'데이프식 원형 스틸 후크'

#외출준비단축
#정리의달인



돌돌 말아 쏙!
'접이식 식기건조대'

#공간절약
#100점설거지

접착식 스틸 후크를 다양한 의류 잡화 정리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옷장 문 뒤에 붙여 벨트와 미니가방을 걸어두니 찾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펜트리 쪽에도 설치해 소품들을 걸을 수 있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옷장 문을 열면 원하는 물건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작은 후크 하나로 생활 동선이 편해졌어요.

다이소몰 기준 원형 스틸 후크 가격 | 1,000원

기존 식기건조대가 작아서 늘 불편했는데, 접이식 제품을 쓰고 나서는 설거지 후 텀블러와 수저까지 편하게 건조할 수 있어요. 다 쓴 뒤엔 돌돌 말아 싱크대 하부장에 쏙 넣으면 끝! 수저 전용 실리콘 건조 부분 덕분에 밑으로 빠질 걱정도 없고, 고무장갑까지 걸어두기 딱 좋아요. 보관·사용 모두 편리한 자취생 꿀템입니다.

다이소몰 기준 접이식 식기건조대 가격 | 5,000원

REVIEW

야외활동 필수템,
위생 점수 올리기

OE해외영업팀 김명권 책임



뽀득뽀득 세균 박멸,
'심플 거품 용기'

#가성비최고
#세정력UP

거품 용기를 물비누 휴대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비누가 거품 형태로 나오니 세정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과 외출할 때 유용한데요! 여름휴가 때도 바닷가에서 대활약을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에 강력 추천합니다~

다이소몰 기준 거품 용기 가격 | 1,000~2,000원

REVIEW

똑똑한 정리템, 정돈된 즐거움

설비기술팀 이희석 수석







취미 활동도 깔끔하게!
'서류 스탠드 & 피규어 보관함'

#지혜로운활용
#안전한보관

롯데 야구 응원 도구인 짝짝이가 너무 많아 정리가 힘들었는데, 서류 스탠드에 꽂아 보관하니 깔끔하더군요. 또 피규어 정리용 보관함을 구입해 좋아하는 피규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다른 소품도 올려둘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응원도 취미도 이제는 정돈된 즐거움으로 즐깁니다.

다이소몰 기준 서류 스탠드&피규어 보관함 가격 | 1,000~2,000원

STATION 2

미래참견시점 52

AI 정복하기 56

철학하는 타이어 60

속마음 번역기 64
ISSUE 68
NEWS 78

단풍이 여러 빛깔로 물들듯,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선사합니다.
웹툰 산업을 흔든 AI 혁신 소식부터 구조화된 프롬프트 설계로
AI 활용 노하우를 높이는 팁을 알아가고, 초를 다투는
치열한 순간 미케닉의 모습을 통해 타이밍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이밖에도 넥센타이어에서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터닝포인트들까지!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달리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다채로운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 콘텐츠 제공 : MIT Technology Review

AI, 모방 수준을 넘어 창작까지? 작가가 죽어도 영혼을 간직한 새로운 작품은 이어진다

"아직 머리도 맑고 손도 멀쩡하기 때문에 AI로 그림이나 이야기 작업에 도움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크지 않다. 하지만 내 캐릭터인 까치, 엄지, 마동탁의 영생을 위해 AI와 손을 잡았다"
1983년에 출간된 야구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유명한 한국의 전설적인 만화가 이현세 작가는 지난해, 웹툰 창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와 접목 중인 AI는 한국 웹툰 산업에서도 새로운 창작의 지평을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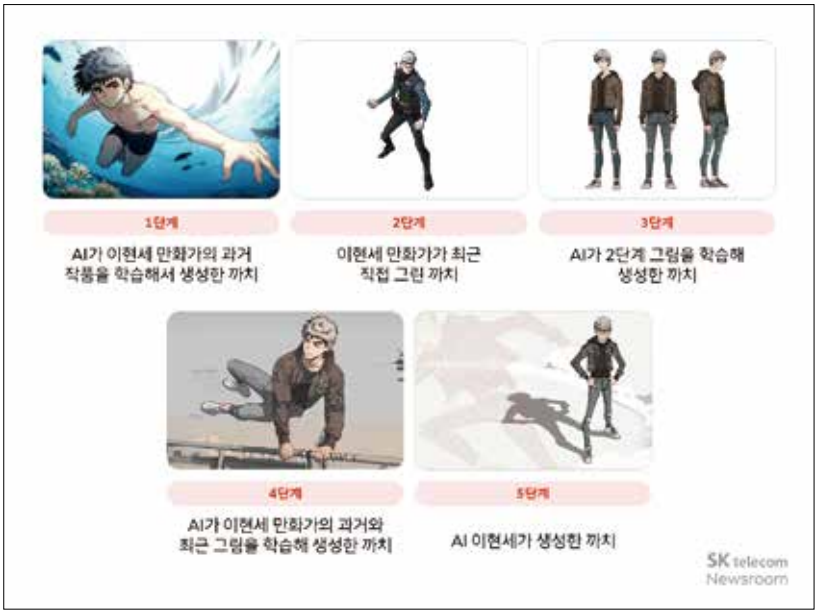


이현세 작가의 AI 기반 웹툰 시리즈 <카론의 새벽>의 주인공인 오혜성(출판사 제공)

까치는 불멸의 캐릭터가 될 수 있을까?

'웹툰'이라고 불리는 웹 만화는 현재 전 세계 수억 명의 독자를 끌어들이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강자로 성장했다. 오랫동안 만화 분야의 선두에서 창작 세계를 넓혀 온 이현세 작가는 한국 최초의 프로야구팀 중 하나인 '삼미 슈퍼스타즈'의 이야기에서 <공포의 외인구단>을 창작할 영감을 얻었다. 1982년 출범한 한국 프로야구 원년 6개 팀 중 하나인 삼미 슈퍼스타즈는 줄지은 연패 기록으로 매번 꼴찌를 기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뛰는 선수들의 모습 덕분에 수많은 응원을 받았다. 이러한 삼미 슈퍼스타즈의 인내의 여정은 희망을 전했다. 그리고 <공포의 외인구단>은 기존 만화의 관습을 깨는 대담한 붓터치와 영화적 화면 구성을 통해 수많은 열성 팬들을 사로잡았다. <공포의 외인구단>에 등장하는 반항적인 주인공 까치(오혜성)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용기 있는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인물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다. 하지만 까치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문화 아이콘이었음에도 이 작가는 까치의 미래를 걱정한다.

까치 캐릭터로 보는 '이현세 AI 프로젝트' 진행 과정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미국에는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만화 캐릭터들이 있지만, 이 작가는 "한국에서는 작가가 죽으면 캐릭터도 같이 죽는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들이 독자들의 기억뿐만 아니라 웹툰 플랫폼에서도 계속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창조한 세계관과 캐릭터가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명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불멸"이라고 했다. 이 작가는 AI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의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와 협력해 이현세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 AI 모델은 영국의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AI 이미지 생성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 이 작가가 46년간 발표한 5,000여 권의 만화 데이터 세트를 학습한 이 모델은 이 작가 특유의 화풍으로 만화를 생성한다. 올해 이 작가는 1994년 발표한 만화 <카론의 새벽>을 리메이크한 첫 번째 AI 기반 웹툰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재담미디어의 작가들은 AI 모델을 사용해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까치가 경찰, 그가 사랑하는 엄지가 대담한 검사로 등장하는 현대판 범죄 드라마로 이 작품을 각색하고 있다.

작가의 세계관을 학습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AI 모델

AI 모델을 사용해 웹툰을 제작하는 창작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3D 해부학 모델, 손으로 그린 스케치 등 다양한 움직임과 제스처에 관해 알려주는 참고 이미지와 텍스트



'오노마AI'가 제작한 AI 생성 웹툰 시리즈 <타로: 일곱 장의 이야기>의 한 장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 작가의 AI 모델이 일러스트를 생성한다. 이후 일러스트를 선별하고 편집해 캐릭터의 포즈를 조정하고 표정을 맞추면서 만화 같은 구성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직까지 AI가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의 역할이다. 여러 차례 수정과 이미지 재생성 과정을 거친 후, 이 작가는 자신의 독특한 예술적 감각을 더해 최종 결과물을 조율한다. 이 작가는 "내 연출에 따라 캐릭터는 화가 났는데 슬픈 눈빛으로 노려볼 수도 있고, 행복한데 사나운 눈빛을 보일 수도 있다"며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은 AI가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섬세한 디테일은 내가 직접 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표정과 감정 표현에 대한 자신의 섬세한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작가가 시도하고 있는 실험적인 AI 프로젝트의 원대한 비전은 그의 창의력을 모방하는 첨단 AI 모델, 즉 '이현세 시뮬레이션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모델은 이 작가의 에세이, 인터뷰, 만화 속 텍스트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그의 철학, 성격, 가치관 등을 학습할 것이다. 이 작가는 이에 대해 "내가 워낙 많은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무수한 세계관을 AI가 학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의 '디지털 클론'(개인의 사고 방식과 행동을 복제해 디지털 형태로 재현한 기술)은 그의 예술적 직관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 작가가 내릴 듯한 창의적인 선택을 하면서 새로운 만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작가 또한 "앞으로 50년 후, 이 현세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떤 만화를 그릴까?"라고 질문하며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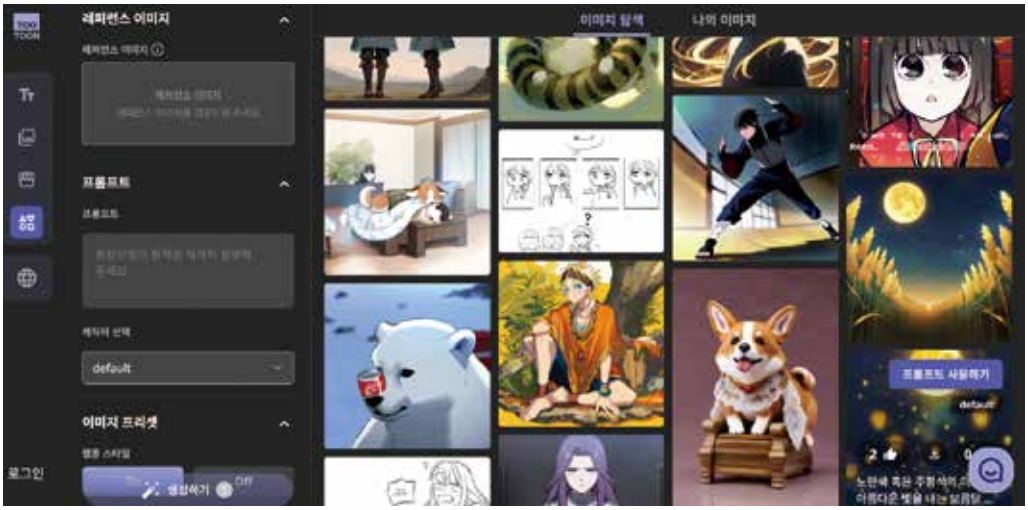
이러한 AI 모델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도 다수 등장했다. 국내 웹툰 AI 플랫폼 기업인 '오노마AI'는 지난해 '투툰(TooToon)'이라는 AI 기반의 웹툰 생성 도

구를 출시했다. 투툰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시놉시스, 캐릭터,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으며 대략적인 스케치가 개인의 예술적 스타일을 입어 세련된 일러스트로 다시 태어난다. 지난해 오노마AI는 젊은 웹툰 작가들과 협업해 타로카드의 저주로 뒤틀린 운명을 풀어내는 미스터리 스릴러 작품 <타로: 일곱 장의 이야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오노마AI와 같은 기업들은 그림을 직접 그리지 못하거나 웹툰 업계에서 요구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수많은 어시스턴트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든 AI의 도움으로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이들은 작가가 힘든 작화 작업을 자동화해 창의적인 에너지를 스토리텔링과 작품 연출에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작가들이 더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스케일이 큰 작품에도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 혁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업 환경의 변화, 그 중심에 있는 AI

지속적인 예술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이현세 작가의 노력은 기술이 주도하는 광범위한 창의성 진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웹툰은 자동 채색 프로그램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때마다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서 표현의 범위를 다양하게 넓혀 왔다. 그리고 이제는 AI 기술이 가세하면서 다음 혁신의 물결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웹툰 산업뿐 아니라 제조, 유통,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들 또한 단순히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AI와 협업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품질 예측 및 신제품 개발에도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 중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인간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큰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과도기적 불안과 혼란이 존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AI의 이점을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인간만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다. 결국 AI와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돼야 한다. 자신의 창의력과 섬세한 작업 방식을 구현하는 AI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이현세 작가처럼 AI를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고, AI와 함께 일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때다.

오노마AI 프로그램



Text. 편집실

프롬프터 팁!
단계별로 자세히 물을수록 똑똑해진다!

구조화의 기술편



AI가 빠르게 일상과 업무에 스며든 지금,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황에 맞게 AI를 안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좋은 '프롬프터(Prompter)'가 돼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앞선 편에서 특정 키워드를 넣어 AI에게 역할을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답변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게 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도출하는 기술 등 다양한 프롬프팅 팁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보다 구조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팁으로 질문을 단계별로 설정하는 법, 가독성을 높이는 법, 고수들이 쓴다는 역질문 스킬까지 소개하려 한다. AI를 단순 응답 도구로 활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 협력자로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는 오늘의 작은 팁이 큰 힌트가 될 것이다.

생각의 과정까지 확인하라

단계별 사고를 이끄는 CoT 프롬프팅

보통 AI에게 “이거 알려줘”라고만 하면 단편적인 답이 온다. CoT(Chain of Thought)는 단계별 프롬프트 요청으로, 최종 결괏값뿐만 아니라 도출 과정까지 볼 수 있는 프롬프팅 기법이다. 우리가 때로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때 “일단 여기부터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엔 이것을 도출해 보자” 라고 단계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듯, AI도 이와 같이 생각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하면 매 단계의 답변을 확인·보완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오류를 줄이고 결과물을 더 촘촘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한 번에 요청했을 때

30대 소비 트렌드 자료 찾아 줄래?

↳ 최종 결과만 요구했을 때는 아이디어만 툭 던져주는 식으로 답변이 얕아질 수 있음

 # 단계별로 요청했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건 다음 분기 매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야.

먼저, **이번 분기 매출 데이터를 요약** 해 줘.

↳ 자료 정리(상황이나 참고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기)

다음으로, 매출이 감소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 해 줘.

↳ 문제 분석(문제에 대한 원인을 짚어달라고 지시하기)

마지막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 아이디어를 제안** 해 줘.

↳ 실행 제안(앞의 분석을 기반으로 최종 아이디어 요청하기)

↳ 맥락 있는 답변이 도출되고, 사고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 신뢰도가 올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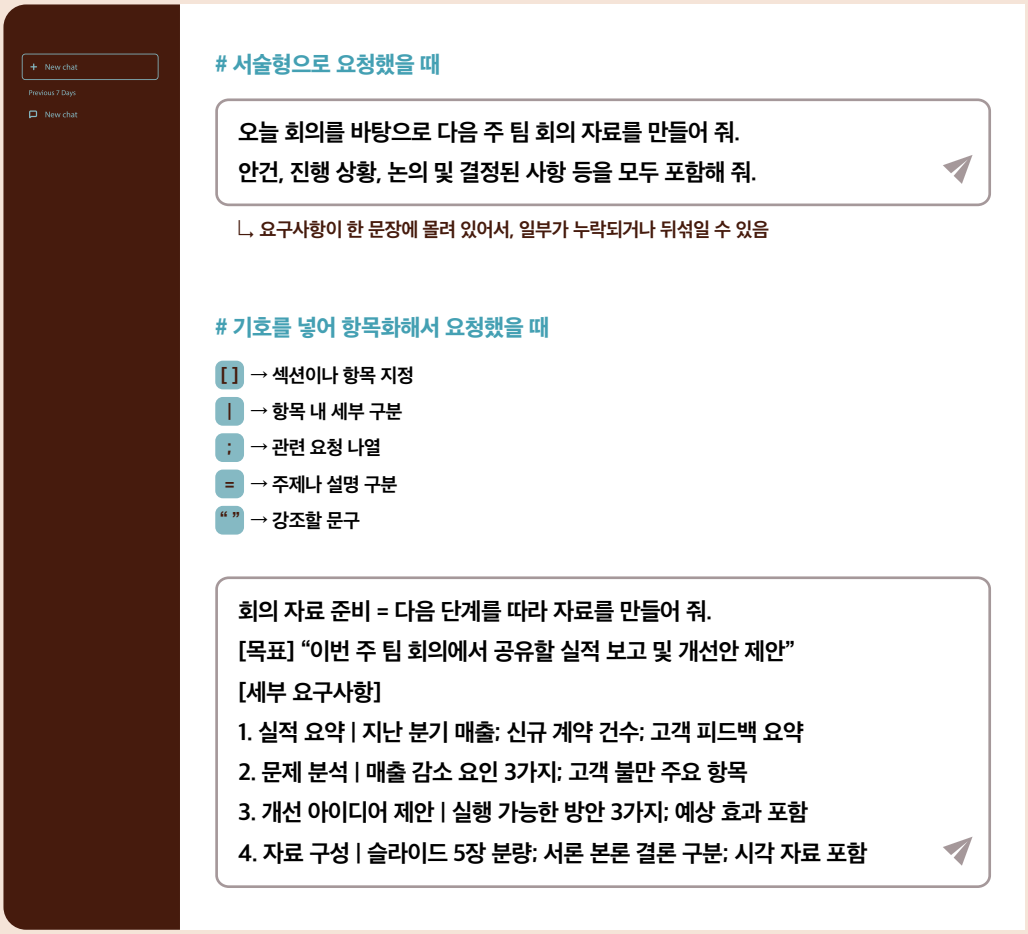
※ 바로 써먹기 좋은 프롬프트 멘트

- “생각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해 줘.”
- “중간 단계를 생략하지 말고 논리 흐름을 차례대로 써줘.”
- “내가 따라 할 수 있도록 사고 과정을 구체적인 단계로 나눠줘.”
- “쉬운 단계부터 복잡한 단계 순서로 풀어가 줘.”

가독성을 높여라

마크다운 기법 적용하기

AI가 요구사항을 혼동 없이 이해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게 하려면, 질문을 항목별로 나누거나 구분 기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프롬프트에 번호, 괄호 등을 사용해 지시, 예시, 질문을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특정 단어 또는 구문을 강조해 보자.



 # 서술형으로 요청했을 때

> 오늘 회의를 바탕으로 다음 주 팀 회의 자료를 만들어 줘.
> 안건, 진행 상황, 논의 및 결정된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해 줘.

↳ 요구사항이 한 문장에 몰려 있어서, 일부가 누락되거나 뒤섞일 수 있음

 # 기호를 넣어 항목화해서 요청했을 때

- [ ] → 섹션이나 항목 지정
- | → 항목 내 세부 구분
- ; → 관련 요청 나열
- = → 주제나 설명 구분
- “ ” → 강조할 문구

> 회의 자료 준비 = 다음 단계를 따라 자료를 만들어 줘.
> [목표] “이번 주 팀 회의에서 공유할 실적 보고 및 개선안 제안”
> [세부 요구사항]
> 1. 실적 요약 | 지난 분기 매출; 신규 계약 건수; 고객 피드백 요약
> 2. 문제 분석 | 매출 감소 요인 3가지; 고객 불만 주요 항목
> 3. 개선 아이디어 제안 | 실행 가능한 방안 3가지; 예상 효과 포함
> 4. 자료 구성 | 슬라이드 5장 분량; 서론 본론 결론 구분; 시각 자료 포함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역질문 스킬로 쉽게 풀어가기

때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질문과 정보를 넣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땐 답변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먼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자. 질문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며 확장하는 이 과정을 통해 AI는 사용자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정교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놓친 부분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Text. 편집실

속도보다 중요한 타이밍!
찰나의 기회를 잡아 명승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레이싱에서 가장 빠른 차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다. '언제 가속하고 속도를 줄일지,
언제 타이어를 교체할지' 등 찰나에 진짜 승부가 갈린다. 초를 다투는 경기에서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레이싱에서의 미케닉은 타이어의 마모, 노면의 온도, 연료의 잔량, 경쟁자의 움직임을 동시에 읽어내며 완벽한
순간을 잡는다. 이 타이밍이야말로 레이싱의 심장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기회를
거머쥘 방법은 준비된 사람만이 알고 있다.





타이어와 레이싱, 그리고 미케닉의 세계

레이싱에서 타이어는 자동차의 '발'이다. 레이싱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와 다르게 그립(grip), 즉 노면을 잡아주는 접지력이 극대화되도록 설계된다. 이를 위해 부드러운 고무(소프트 컴파운드)를 사용해 코너에서 마치 손바닥처럼 노면을 붙잡지만, 그만큼 마모가 빠르다. 일반 도로 타이어가 수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다면, 레이싱 타이어는 트랙 상태와 타이어 컴파운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40랩(약 190km)을 못 버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짧은 수명 동안 발휘되는 성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다. 그래서 경주 중에는 일정한 주행 거리나 노면 상태 변화에 맞춰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피트 스톱(pit stop)이다. 피트 스톱은 경주차가 트랙을 잠시 벗어나 피트레인이라는 전용 구역에 들어와 정비를 받는 순간이다. 보통 2~3초 만에 네 개의 타이어가 교체되고, 필요하면 연료 보충과 차체 조정이 이루어진다. 속도의 세계에서 '멈춘다'는 것은 위험이지만, 이 몇 초의 멈춤은 오히려 차를 더 빨리 달리게 만든다.

이 순간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레이싱 미케닉(racing mechanic)이다. 미케닉은 단순히 타이어를 갈아끼우는 사람이 아니라, 차량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체 시점과 전략을 판단하며, 드라이버와 무선으로 교신하는 '현장의 두뇌'다. 미케닉의 결정 하나로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경쟁자가 이미 몇 초, 혹은 몇 랩(lap, 트랙 한 바퀴) 앞서 있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트 스톱 사례 중 맥라렌 F1 팀(McLaren Formula 1 Team)은 2011년부터 스포츠 과학자와 협력해 피트 스톱 크루를 '운동 선수'처럼 훈련했다. 시각 집중력 훈련과 동작 분석 등을 통해 평균 4.5초였던 시간을 2012년 독일 그랑프리에서 2.31초까지 단축했고, 2023년 카타르 그랑프리에서는 1.80초라는 세계 최단 기록을 세웠다. 피트 스톱이 초단위의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처럼 미케닉의 역할은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다. 무대 뒤의 주인공이며, 타이밍의 장인이다.

인생과 피트 스톱, 타이밍을 잡은 사람들

우리의 삶도 멈춰야 할 때,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새로운 장비로 갈아입고 다시 달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인생은 레이싱과 달리, 그 순간이 항상 예고 없이 온다. 미케닉이 수백 개의 데이터 속에서 단 하나의 신호를 읽어내듯, 우리도 삶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건강의 경고음, 관계의 마찰음, 기회의 발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꾸준하고 탄탄한 준비의 자세로 인생에 찾아온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인물들이 있다.



화학의 난제를 푼 AI 전문가

데미스 하사비스 & 존 점퍼, 데이비드 베이커

2024년 노벨 화학상 시상식에서 전 세계 과학계가 술렁였다. 수상자 명단에 인공지능(AI) 전문가인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 그리고 단백질 설계 분야의 거장 데이비드 베이커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화학상은 전통적으로 분자, 반응, 합성 등 화학의 본령에 집중해 온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지만, 이번 수상은 그 경계를 과감히 넘어섰다. 하사비스와 점퍼는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폴드(AlphaFold)를 통해,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사실상 해결했다. 입체적 구조를 도출하는 일은 극도로 복잡해 과거의 X선 결정학이나 전자현미경 분석으로는 몇 년이 걸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알파폴드로 이 과정을 몇 시간 만에 가능케 하며 신약 개발과 질병 원인 규명 등 생명과학 및 의학 전반의 병목 과제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냈다.

이 성취는 우연이 아니었다. 베이커가 이끄는 단백질 구조 연구 커뮤니티는 수십 년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험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하사비스와 점퍼는 이 토대 위에서 AI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훈련시켰다. 오랜 시간의 준비가 있었기에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가장 적절한 시점에 투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난제를 돌파할 수 있었다. 이는 마치 레이싱 미케닉이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리허설 끝에 단 몇 초의 피트 스톱으로 경기를 뒤집는 순간과 같다. 준비와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필연의 성과였다.

과학의 역사는 늘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도약해 왔다. 기존의 안전한 길을 걷는 대신, 세 사람은 데이터 과학과 AI라는 낯선 도구를 과감히 연구 한복판에 들였다. 전통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용기였다. 화학 실험실 안에서만 이뤄졌을 발견이, 전혀 다른 무대인 AI 연구실과 데이터 플랫폼에서 탄생했다. 한 번의 영감이나 행운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끈질긴 실행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다. 도전은 불확실성을 품지만, 그 속에서만 새로운 해답이 태어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시대를 바꾸는 변화가 숨 쉬는 자리다.

부엌을 작업실 삼은 날카로운 스토리텔러

토니 모리슨

1993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문학상 시상식 무대에 오른 토니 모리슨은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수상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미 5년 전, 장편소설 《빌러비드(Beloved)》로 퓰리처상을 거머쥔 그는, 이제 문학의 최고 권위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복권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1960년대 랜덤하우스의 편집자로 일하며 당시 문단에서 소외된 흑인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출간했고, 이를 통해 흑인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키웠다. 이 시절 그는 편집자로서 하루 종일 원고를 다루고, 밤에는 두 아이를 재운 뒤 조용히 부엌 식탁에서 자신의 글을 써 내려갔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생계와 병행해야 하는 '틈새 작업'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언어의 밀도를 높이고, 서사 구조를 단단하게 다듬는 법을 배웠다. 40세에 첫 소설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을 발표 후, 문학적 주목을 받기까지 약 7년이 걸렸고 세계적 작가로 우뚝 서기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다. 하지만 모리슨은 조급해 하지 않았다.

1970~80년대에 발표한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 《타르 베이비(Tar Baby)》 등은 흑인 공동체의 역사와 여성의 목소리를 꾸준히 탐구하며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한 과정이었다. 그에게 결정적 순간은 1987년,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정체성 논의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던 시기에 《빌러비드》를 발표하면서 찾아왔다. 노예제의 상흔과 모성애를 결합한 서사는 시대의 담론과 정확히 맞물렸고, 독자와 비평계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토니 모리슨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수십 년간 이어온 치열한 노력과 실력의 집약이었다. 편집자로서의 날카로운 시선, 싱글맘으로서 한밤중 부엌 식탁에 앉아 쌓아올린 문장들, 그리고 흑인 여성의 목소리를 꿋꿋이 문학의 중심에 세운 뚜렷한 정체성은 그만의 문학적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모리슨의 수상은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이 기회의 순간을 만나 빛을 발한 대표적 사례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만이 완벽한 타이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발명가 루이스 파스퇴르는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라고 말했다. 타이밍은 행운의 선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갈고 닦은 역량이 현실로 솟구치는 순간이다. 레이싱의 피트 스톱이 단 몇 초 만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수백 번의 점검과 훈련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타이밍도 같다.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준비된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발을 내딛는다. 타이밍은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 불씨를 품어온 자만이 붙일 수 있는 불꽃이다.



Text. 편집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두루뭉술한 화법이 불러온 오해의 순간들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 종종 “괜찮으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것 같아요” 등의 쿠션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쯤 얘기하면 다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두루뭉술한 표현을 쓸 때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한 말들이 의도와 달리 엉뚱한 결과를 낳아 당황했던 적,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대화

속마음

#명확하게 말하지 못해 놓친 우선순위



#최소한의 기준만 전달한 가이드 라인



#지나친 완곡함으로 생긴 모호한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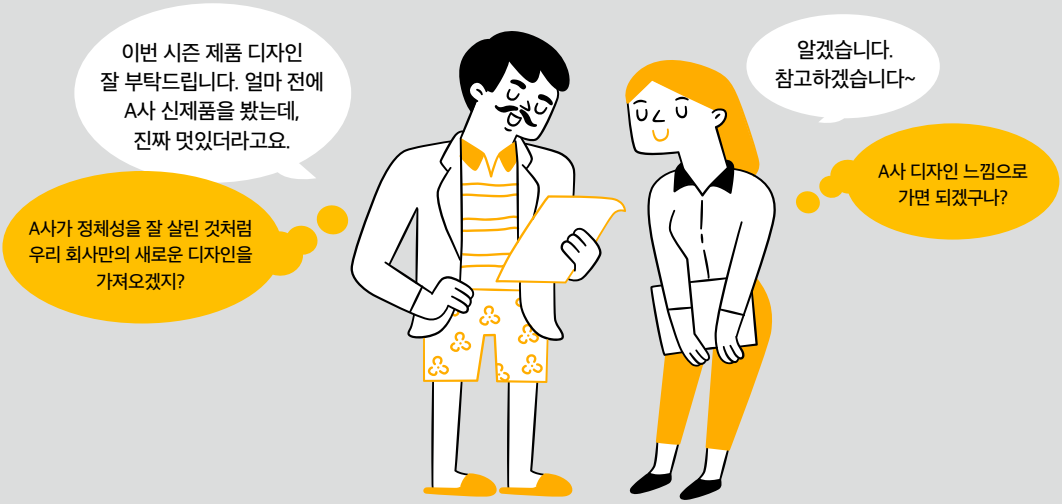
서로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특히나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 세부 기준이 중요한 보고서, 수정이 필요한 프로젝트 등을 다룰 때는 긴급성이나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가 자신의 판단으로 우선순위와 내용을 조절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의도한 방향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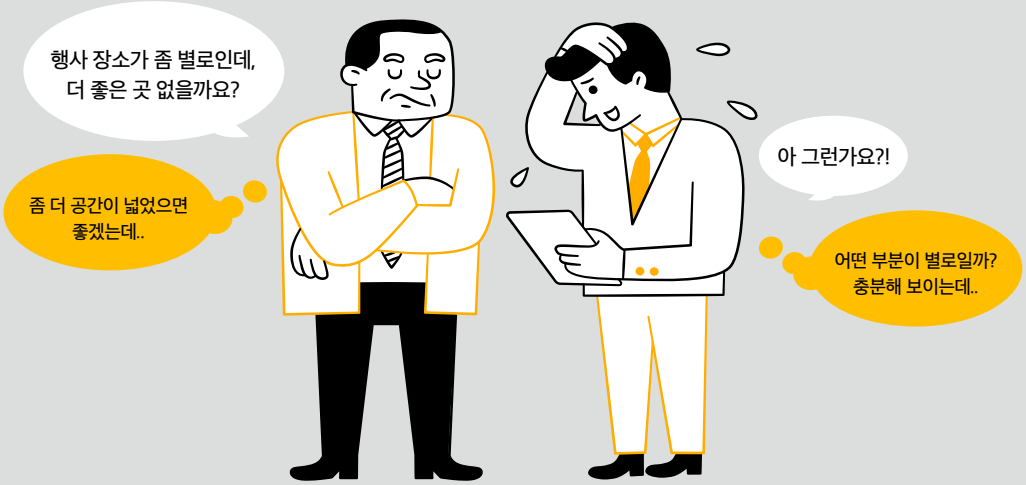
두 번 일하게 만드는 모호한 표현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만을 말하고,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이 지시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경계가 흐릿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말을 자신 나름대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창의적인 업무에서는 이런 모호한 표현이 더욱 불확실성을 남긴다.

#개인적인 느낌과 업무 요청의 혼재



#주관적인 표현이 가져오는 어려움



일 잘 러 의 화 법 !
막 힘 없 는 소 통 을 위 한 업 무 대 화 가 이 드

업무 대화에서 필요한 건 '딱 필요한 만큼'의 구체성이다. 원하는 바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되 부드러운 톤을 더하고 싶다면, 요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쿠션어와 같은 표현은 뒤에 덧붙이도록 하자 "오늘 오전까지 요청드린 자료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처럼 말이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기억하자.

01
긴급성과 중요도는 숫자·시간으로 구체화

✖ 가능하면 오늘 안에 부탁드려요.

⭕ 오늘 오후 5시까지 검토 완료 부탁드려요.
가장 급한 부분은 2~3 페이지입니다.

↳ **기한과 우선순위를 정확히 전달할 때 상대의 액션도 분명해진다**

02
꼭 필요한 가이드 라인은 상세하게 제공

✖ 한 장 정도로 작성해 주세요.

⭕ 한 장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해 주세요.
표나 그래프는 선택 사항입니다.

↳ **'얼마나', '어떻게'라는 기준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것**

03
모호한 피드백 대신 명확한 의견 제시

✖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조금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3번과 5번 항목의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나머지는 좋습니다.

↳ **처음부터 확실하게 표현하면 두 번 세 번 요청하는 일이 없어진다**

04
선택을 맡길 때는 선호 의견도 함께 표현

✖ 편하신 대로 결정하셔도 괜찮아요.

⭕ A안과 B안 모두 가능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B안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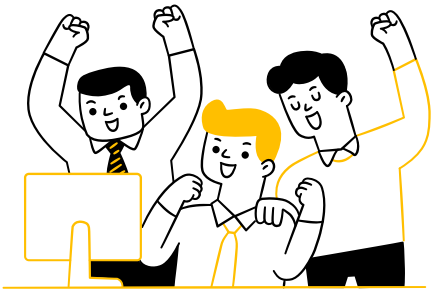
↳ **의사결정을 확실히 전달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다**

05
업무 분담 시, 책임 구간은 다시 한번 체크

✖ 이 부분은 다 같이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 자료 수집은 A님, 보고서 작성은 B님,
최종 검토는 제가 맡겠습니다.

↳ **각자 맡은 부분을 정확히 하면 후속 업무에서 오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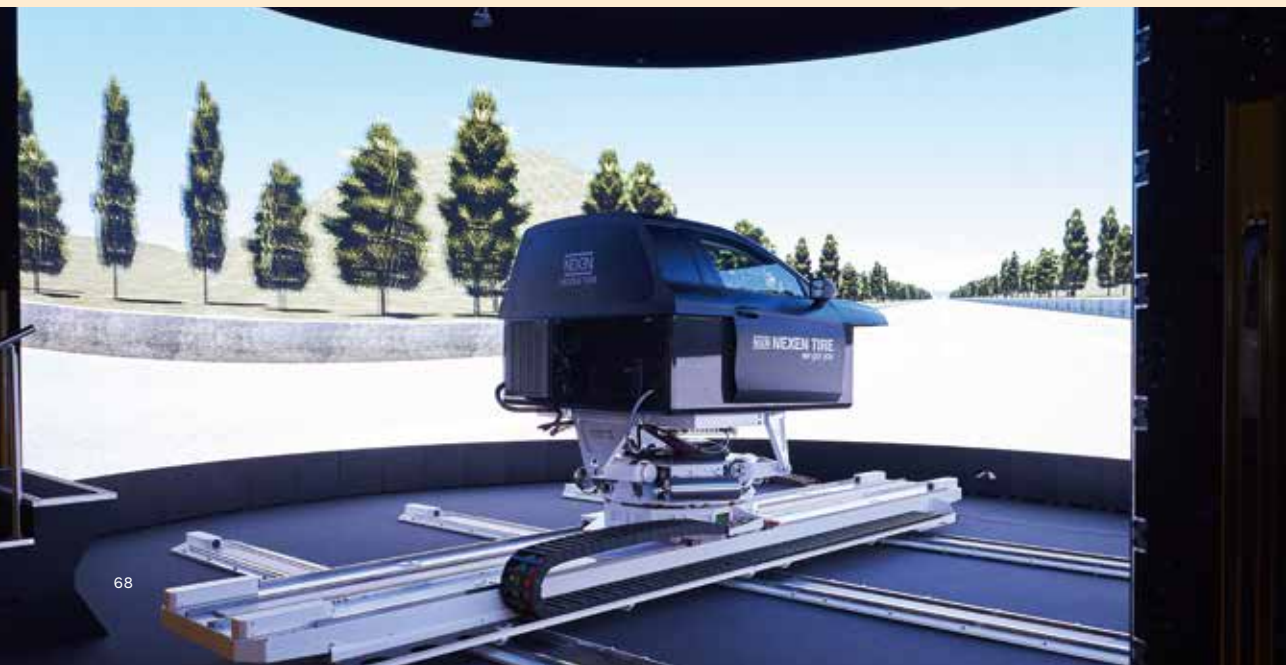


ISSUE ①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국내 업계 최초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







넥센타이어가 서울 마곡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에 국내 업계 최초로 High Dynamic '드라이빙 시뮬레이터(Driving Simulator)'를 구축하고 8월 26일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도입은 VR과 AI 기술을 활용한 타이어 연구개발 강화의 전환점으로, 실차 시험과 시제품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가상 환경에서도 정밀한 타이어 성능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식에는 강호찬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의 구조 및 운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후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의 멋진 출발을 알리는 리본 커팅과 함께 LED 화면에는 실제와 같은 주행 환경이 펼쳐졌고, 강호찬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은 직접 데모 주행을 체험했다. 2층 관람실에 모인 참석자들은 시뮬레이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봤다.

체험을 마친 강호찬 부회장은 "국내 최초의 설비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R&D 분야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석 사장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것 같다"며, "기술 및 상품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실제 주행 환경을 가상공간에서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구현하는 최첨단 장비로, 차량 주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차량 모델과 타이어 모델, 테스트 트랙과 주행 환경을 제어하고, 하드웨어는 캐빈과 모션 엑츄에이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제 주행감을 재현한다. 특히 넥센타이어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높은 해상도의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더욱 밝고 선명한 주행 환경을 구현했으며, 선회 시 발생하는 가속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타이어 모델 평가에 매우 적합하다.

이번 시뮬레이터 도입으로 넥센타이어는 기존 타이어 개발 프로세스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기존에는 개발 완료까지 여러 번의 시험품을 제작해서 평가하는 프로세스였지만, 시뮬레이터 도입 이후에는 가상의 타이어를 통해 성능을 육성하고 시험품 제작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 평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타이어 성능을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타이어의 핸들링 성능, 승차감, 조향 반응, 제동력 등 주요 성능을 실차 평가 없이 검증할 수 있으며, 완성차 제조사가 요구하는 신차용 타이어 성능 기준에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시험용 타이어 제조 횟수와 실차 평가가 줄어들어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에도 도움이 되며, 타이어 개발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시뮬레이터 운영을 위해서는 차량 모델, 타이어 모델, 도로 모델 등 세 가지 핵심 버추얼 모델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차량 모델은 무게, 치수, 서스펜션 특성 등을 반영하며, 타이어 모델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FEM* 해석과 AI 기술을 접목해 제작된다. 도로 모델은 시험장 도로의 높이, 경사, 곡률과 노면 마찰 특성을 포함하며, 세 가지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야 실제 주행과 유사한 평가가 가능하다.

*FEM: 유한 요소 해석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수치적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법

넥센타이어는 이번 시뮬레이터 도입을 기점으로 '풀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Full Virtual Development Process)'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가상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이어 개발 속도를 높이고, 비용 효율성과 ESG 경영 실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뮬레이터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조향계 모델과 스티어링 토크, 피드백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실제 주행과 유사한 입력과 주행 반응성도 구현할 계획이다. 담당 연구원은 "향후 지속적인 튜닝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타이어 모델을 빠르게 평가하고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뮬레이터는 자동차와 타이어의 가상 개발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넥센타이어의 전략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도입은 타이어 개발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화를 앞당기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ISSUE ②



Text. 윤리경영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풀어가요”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

“이게 규정 위반일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업무 중 문득 찾아오는 ‘애매한 순간들’. 규범 해석 문의, 이해관계자 관련 딜레마, 그리고 상사 동료 간 갈등 또는 부당지시까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모든 윤리적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친한 동료의 금전 부탁



Q 친한 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협력업체 경조사비



Q 협력업체에서 제 가족의 경조사에 2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근무시간 개인적인 업무



Q 팀원이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과도하게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하지만 팀원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지적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Q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는 뭐하는 곳인가요?

넥센타이어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는 기업 윤리와 관련된 궁금증, 업무 중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나 판단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Q 어떤 문제들을 상담해주고 있나요?

- 윤리규범, 행동지침 등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방법이 궁금할 때
- 협력사, 고객, 외부 파트너 등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판단이 애매할 때
-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윤리와 충돌하는 경우, 또는 팀 내 갈등이 생겼을 때
- 기타 불합리하거나 윤리적으로 고민되는 상황이 있을 때
- "이건 윤리 딜레마일까?"싶은 상황도 OK!

Q 상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STEP 1



고민 접수

'이건 어떻게 해야 하지?' 싶은 순간,
상담센터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STEP 2



답변 준비

윤리경영팀 담당자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STEP 3



함께 고민

1:1 상담을 진행하며 윤리적 판단에
도움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요.

STEP 4



마무리 안내

궁금한 점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안내까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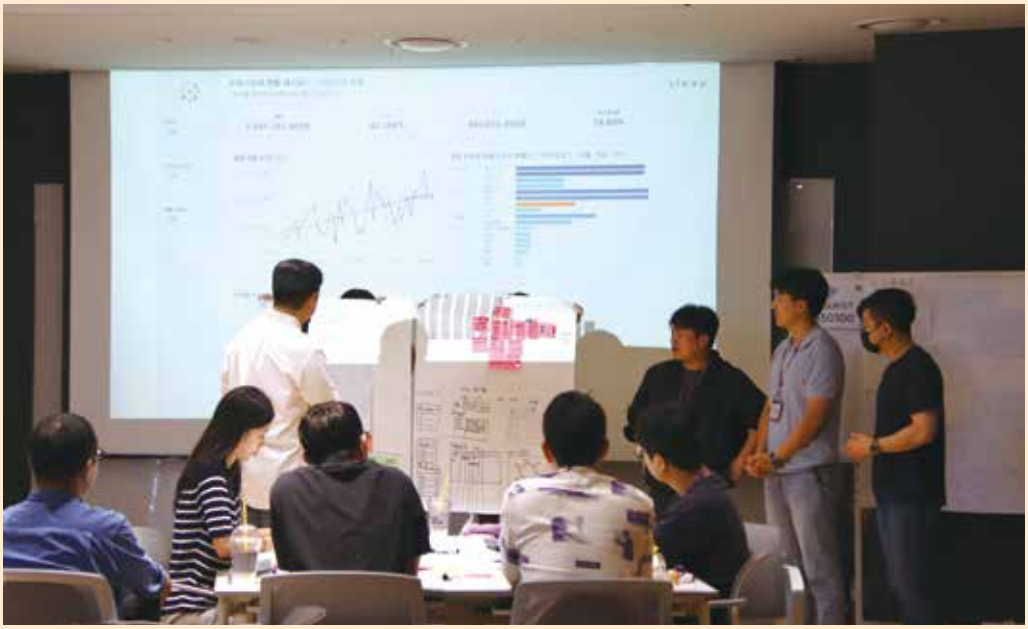
Q 고민을 상담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윤리 딜레마 상담은 윤리경영팀 담당자가 직접 접수하고 신속히 처리합니다. 상담자의 신원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SSUE ③

Text / Photo. 인재개발팀

AI·데이터로 일하는 스마트 혁신 'DT Academy'










지난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DT Academy는 생성형 AI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여 업무 자동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내 원데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 참여는 전사 임직원 자율 신청제였으며, 총 10개 차수 중 대부분이 초과 모집될 만큼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DT Academy는 AI를 주제로 한 8개 차수와 DATA를 주제로 한 2개 차수로 구성됐다. AI 과정은 기초와 심화로 나뉘어 각각 4개 차수가 개설되었으며, 마곡뿐 아니라, 양산과 창녕에서도 함께 진행됐다. AI 기초 과정은 ChatGPT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중심으로, 심화 과정은 영업, 생산 및 품질, R&D, 전략 및 기획 등 직무별 특성에 맞춰 AI 기반 업무 자동화 방법을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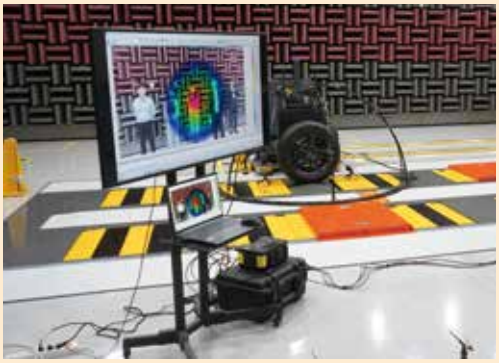
DATA 과정은 교육생들의 Tableau 활용 수준을 고려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구성됐다. 기초 과정은 DDDM(Data Driven Decision Making) 워크숍과 초급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화 과정은 Tableau의 고급 기능인 다양한 함수와 매개변수 활용, LOD와 날짜 함수 등을 다뤘다. 두 과정 모두 실제 사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DX 파트 실무자와 협업해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DT Academy는 단순한 툴 교육을 넘어, 생성형 AI의 제약 조건 이해, 데이터 분석 실습, 업무 자동화, AI 코드 생성, 퍼스널 챗봇 제작, AI 활용 아이디어 발굴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했다. 특히 교육 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성원들이 AI를 통해 효율화하고 싶은 업무, 활용 경험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 내용에 적극 반영했다. 또한 최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생성형 AI를 학습하고, 이를 업무 자동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DT Academy는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넥센타이어는 이번 교육의 만족도와 참여자 니즈를 기반으로 후속 AI 교육을 확대하고, 전 구성원이 AI를 업무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ISSUE ④

Text / Photo.
Corporate Communication팀
이선경 책임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 R&D Tour 개최





넥센타이어는 지난 9월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R&D Tour를 개최해 당사의 현재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한 눈에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업계 최초로 도입한 하이 다이내믹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시승 체험이 가능했으며, 중앙연구소의 시설과 조직 전반도 함께 소개하는 시간이 됐다. 더불어 버츄얼 연구 영역에서의 성과와 향후 로드맵 공유, 사옥 투어와 주요 컨셉타이어 수상작까지 선보여 넥센타이어의 R&D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이번 행사는 빠르게 혁신이 진행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에서 완성차뿐 아니라 타이어 업계 역시 VR,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R&D 동향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버츄얼 연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유럽 타이어 시장 내 겨울용 타이어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당사의 R&D 활동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무향실, 재료마찰특성연구실 등 주요 연구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진행됐다.



넥센타이어는 2023년 IR 전담 조직이 출범한 이후, 매년 투자자들과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년에는 창녕공장 및 대구 Proving Ground를 방문해 타이어 생산 공정과 실차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올해는 당사의 미래 성장성 및 R&D 경쟁력을 소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각 연구시설의 담당 실무진은 물론이고 중앙연구소 내 주요 임원들이 직접 행사 현장에 동행하며 심도 깊은 설명을 진행해 준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IR 소통을 지속하며 당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로 제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NEXEN TIRE
we got you
83





NEWS

유럽·중남미·중동에 새 거점, 글로벌 성장 동력 강화

넥센타이어가 유럽·중남미·중동 등 주요 전략 시장에서 신규 지점과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확장은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적 투자다. 해외 매출 비중이 약 85%에 달하는 넥센타이어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 등 핵심 시장 중심으로 공급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유럽 체코 자테츠 제2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기존 주요 시장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신규 성장 시장까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유통 환경과 고객 특성에 특화된 운영 체계를 구축해,유통망 효율성과 고객 접점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 유럽에서는 남동유럽 지역 대응을 위해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신규 지점을 설립한다. 루마니아는 2024년 GDP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유럽 전역에서 차량 보급 확대에 따른 타이어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지점은 루마니아를 비롯해 세르비아·불가리아·코소보 등 동유럽 9개국 유통을 전담하며 판매 경쟁력을 높여갈 예정이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법인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미국 법인이 멕시코를 포함해 관리했으나, 향후 중남미를 독립 사업권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에는 중남미 타이어 시장의 급성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조사 기관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4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타이어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멕시코 법인을 거점으로 온두라스·과테말라·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등 주요 국가에서 영업·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중남미 전역에서 브랜드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넥센타이어는 2009년 두바이 지점 개설과 2023년 이집트 법인 설립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 사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다. 최근 중동 지역은 여성 운전 허용, 소득 증가, 도로 인프라 확충, 고온 기후로 인한 교체 주기 단축 등으로 타이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우디 법인은 카타르·바레인·예멘 등 인접국까지 포괄하는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거래처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지역 판매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소재 알 나스르(Al Nasr SC) 구단 후원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근 넥센타이어는 스페인과 폴란드 등에서 거점을 확대했으며, 호주에서는 동부 해안 경제권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장해 지난해 매출이 2023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ESG 평가 에코바디스 2년 연속 '골드' 등급 획득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조사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ESG 평가에서 '골드' 등급을 2년 연속 획득했다. 에코바디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ESG 평가 기관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2007년 설립 이후 전 세계 185개국, 15만 개 이상의 기업을 평가하고 있으며,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등급을 부여한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평가에서 전체 상위 3%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통적으로 환경, 노동·인권, 지속가능한 조달, 윤리 등 4개 전 부문에서 점수가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문에서는 GPSNR(지속가능한 천연고무 플랫폼),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SBTi(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등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와 함께 에너지 전환 및 기후 대응 관련 임직원 교육, 온실가스 전 범위 배출량 공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노동·인권 부문에서는 UN 및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정책과 선언문 고도화, 인권영향 평가 도입 등이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윤리 부문에서도 리스크 예방·점검·완화 활동의 체계화를 통해 경영 내재화가 강화됐으며, 지속가능한 조달 부문에서는 협력사 대상 ESG 서면 진단과 현장 실사, 평가 기반의 리스크 대응 활동이 점수 향상으로 이어졌다.

내연기관·전기차 레이스 모두 석권, 원 타이어 전략 통했다



넥센타이어가 지난 7월 12일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하 슈퍼레이스)'의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TOYOTA GAZOO Racing 6000)' 클래스 4라운드에서 트리플 포디움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은 2007년 CJ그룹이 출범시키고 국제자동차연맹(FIA) 산하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의 '챔피언십' 타이틀을 획득한 국내 최대 규모 모터스포츠 대회인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클래스다. 이 클래스는 국내 최정상 드라이버들이 경쟁하는 아시아 유일의 스톡카 레이스로, 동일 스펙의 차량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기량과 팀 전략, 그리고 타이어 성능이 경기 결과를 좌우한다. 이번 4라운드에서는 넥센타이어를 장착한 서한GP 팀이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차지하며 트리플 포디움을 기록,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다. 세 선수 모두 넥센타이어의 '엔페라(N'FERA) SS01'을 장착하고 레이스를 완주했으며, 마른 노면에서의 뛰어난 접지력과 코너링 성능으로 탁월한 퍼포먼스를 발휘했다.

넥센타이어의 레이싱 성과는 다양한 대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같은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5 현대 N 페스티벌' 대회의 '아이오닉 5 N Cup Car'로 경쟁하는 전기차 클래스인 <eN1>에서도 넥센타이어의 파트너 레이싱팀이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해당 경기에서도 슈퍼레이스와 동일한 '엔페라 SS01' 타이어가 사용돼 내연기관 차량은 물론 전기차 레이스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제품 전략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넥센타이어가 차종을 가리지 않고 레이싱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배경에는 '원 타이어' 전략이 있다. 내연기관 타이어와 전기차 타이어 모두, 차량의 파워트레인(동력 장치)에 관계없이 고성능과 고품질을 갖추어 모든 차량에 적합하도록 하겠다는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넥센타이어는 차종과 도로 환경을 불문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을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전 차종에 대응 가능한 범용성과 품질 신뢰를 겸비한 제품군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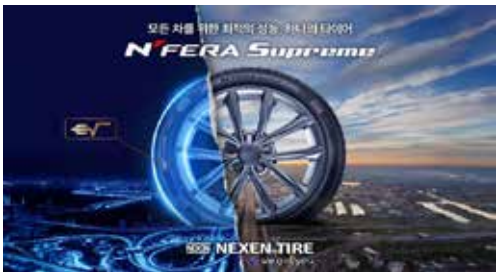
기아 글로벌 전략 차종에 신차용 공급 확대



넥센타이어가 기아의 주요 글로벌 전략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OE) 공급을 확대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기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EV6에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엔페라 슈프림 S(N'FERA Supreme S)'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2021년부터 내수와 수출용 EV6 차량에 OE를 공급해 왔으며, 이번 공급 확대로 북미 현지 생산 차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것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엔페라 슈프림 S'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중시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개발된 프리미엄 올시즌 타이어로, 특히 전기차에 요구되는 정숙성, 주행 안정성, 저구름 저항 성능을 균형 있게 구현했다. 해당 제품은 기아 EV3, EV4 등 주요 전기차 모델은 물론 프리미엄 세단에도 장착되고 있으며, 이번 공급 확대를 통해 넥센타이어는 고성능·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남미 수출 차량에 한해 공급하던 기아 '타스만(Tasman)'에 대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최근 국내 시장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글로벌 지역으로 확대했다. 타스만에 장착되는 '로디안 HTX2(ROADIAN HTX2)'는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르는 SUV·픽업 전용 타이어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정숙성, 내구성, 핸들링 성능을 고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기아의 전략 모델인 '타스만'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내연기관 모두 장착 가능한 '엔페라 슈프림 EV루트' 출시



넥센타이어가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모두에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엔페라 슈프림 EV루트'를 출시했다. '엔페라 슈프림 EV루트'는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엔페라 슈프림'에 고하중·저소음 기술을 접목해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고하중 SUV와 전기차의 무거운 배터리 하중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HL(High Load)' 하중지수를 적용했으며, 노면 소음을 줄이기 위한 흡음재도 함께 설계됐다. 또한 사각형 형태로 설계된 타이어 바닥면과 넥센타이어 고유의 3D 커프 기술을 적용해 노면 접촉 면적이 확대되어,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핸들링과 제동력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엔페라 슈프림 EV루트'는 기아 EV6를 활용한 실차 테스트를 통해 기존 제품보다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젖은 노면 제동력과 핸들링, 마른 노면 제동력, 주행 중 소음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기록했으며, 특히 드라이 핸들링과 승차감은 13%, 회전 저항은 약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주행 반응과 전비 효율 모두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EV루트'는 넥센타이어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제품에 도입한 자사 전용 마크다. 내연기관은 물론 고출력 전기차에도 대응 가능한 고성능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부여된다. 첫 번째로 선보인 '엔페라 슈프림 EV루트'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규격이 설계된 동시에, 내연기관 차량에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를 통해 전 차종 범용 고성능 타이어라는 점에서 차별화했다. 넥센타이어는 'EV루트' 마크를 향후 출시되는 신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며, 차량의 동력원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우수한 성능 기준을 제공하는 브랜드 표준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넥센타이어는 신규 마크 도입과 함께 제품 개발 방식에도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연비, 소음, 핸들링, 접지력, 강성 등 타이어의 주요 성능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하는 'AI 기반 타이어 성능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VR(가상현실) 기반 'High Dynamic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도입해 가상의 주행 환경에서 제품 성능을 수치화하고 최적의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트로엥 C5·C5에어크로스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완성차 그룹 스텔란티스의 시트로엥 'C5'와 SUV 모델 'C5에어크로스'에 프리미엄 초고성능 타이어 '엔페라 스포츠(N'FERA Sport, 225/60R18)'를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

시트로엥은 푸조·피아트·지프 등을 보유한 스텔란티스 산하의 1919년 설립된 유서 깊은 브랜드다. 넥센타이어는 스텔란티스와 OE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다. C5와 C5에어크로스에 장착되는 '엔페라 스포츠'는 넥센타이어를 대표하는 초고성능(UHP) 타이어다. 고속 주행 시의 안정성,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 정밀한 핸들링 성능이 강점이다. 특히, 유럽 소비자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춰 고하중 차량에 적합한 구조와 정숙한 승차감을 구현했다. 이 같은 성능을 바탕으로 현재 포르쉐를 비롯한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 차종에 장착되며, 넥센타이어 제품 중 가장 많은 신차용 타이어 승인을 받은 모델이기도 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전량 체코 자테츠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유럽 공장에서 생산된다.

'엔페라 스포츠'는 유럽 주요 타이어 테스트 기관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연맹인 ADAC, 독일 유명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 스위스 차량 안전성 평가 기관인 TCS, 오스트리아 ÖAMTC 등 유럽 내 유력 평가 기관의 2025년 하계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우수' 및 '강력 추천' 등급을 받으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넥센타이어는 이 같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럽 내 신차용 타이어 공급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로디안 ATX 출시로 호주 SUV·픽업트럭 시장 공략 박차



넥센타이어가 '로디안 ATX(ROADIAN ATX)'를 호주 시장에 출시하며 고인치 타이어 수요가 높은 현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로디안 ATX'는 온·오프로드 주행을 모두 아우르는 SUV 및 픽업트럭 전용 타이어로, 사막과 산악, 비포장도로, 해안 도로 등 지형과 기후 변화가 큰 호주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또 기존 제품보다 넓어진 접지 면적과 마모에 강한 고성능 컴파운드를 적용해 높은 마일리지와 주행 성능을 모두 확보했다. 오프로드와 젖은 노면의 주행에 특화된 기술도 더해졌다. 미세한 홈을 정교하게 설계한 '3D 커프' 기술을 통해 젖은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발휘하며, 강화된 눈길 주행 성능으로 윈터타이어에 적용되는 3PMSF 인증도 획득했다. 여기에 타이어 홈 사이에 낀 자갈을 주행 중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스톤 이젝터'와, 바위나 자갈길에서도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이어 측면에 돌기 형태로 설계된 '사이드 바이트' 기술이 적용돼 험로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로디안 ATX'의 호주 출시는 픽업트럭과 SUV 등 대형 차량을 선호하는 호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고인치 타이어 수요를 타겟으로 한 전략의 일환이다. '로디안 ATX'는 지프의 '랭글러'와 '글래디에이터'에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 중인 제품이다. 넥센타이어는 이 밖에도 다양한 제품을 통해 포르쉐,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세계적인 완성차 브랜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호주를 전략 시장으로 삼고 현지 공급망을 지속 확대해 왔다. 특히,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을 잇는 동부 해안 경제권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장하며, 호주 시장 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난해 빅토리아주에 물류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 물류 거점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도 병행 중이다. 2024/25 시즌부터 호주 A리그 프로축구팀 '시드니 FC'를 공식 후원하며, 호주 전역에서 브랜드 노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드니 FC의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SNS 콘텐츠와 뉴스레터 광고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으며, 남자팀의 경우 홈경기 시 LED 및 전광판 광고를 통해 경기장 현장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기아 첫 목적기반차량 'PV5'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기아에서 새롭게 선보인 목적기반차량(Purpose Built Vehicle, PBV) '더 기아 PV5' 유럽 등 수출 차량에 고효율·고성능(HP) 여름용 타이어 '엔블루 S(N'Blue S 215/65R16 102H)'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아 PV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글로벌 PBV 전략 모델이다. 패밀리카부터 캠핑카, 업무용 차량까지 다양한 용도에 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연하게 확장되는 실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향후 도심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공급을 통해 전기차 기반 다목적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타이어 기술력을 입증했다. '기아 PV5'에 장착되는 '엔블루 S'는 친환경 및 고성능 차량에 적합한 타이어로 유럽의 강화된 CO_2 규제에 대응해 타이어의 회전 저항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아우디 A3, 세아트 레온, 스코다 스칼라, 폭스바겐 골프, 현대 캐스퍼 EV, 기아 니로 등 다양한 유럽형 차량의 신차용 타이어로 장착되며 상품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엔블루 S'는 차량의 소음과 연비 개선을 위한 사이드월 공기역학 기술을 적용해 연비 등급뿐만 아니라 유럽 환경 규제의 한 기준인 주행 소음도 저감했다. 특히, 기존 제품 대비 간결한 그루브 디자인으로 고속 배수성과 빗길 제동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도심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제동 성능과 탁월한 내구성을 제공하며, 상업용 전기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넥센타이어는 80여 년 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차용 타이어 공급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포르쉐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본격적으로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짧은 시간에 유수의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타이어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

HELLO NEXEN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인재개발팀 신혜리 선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가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

이벤트 참여하기

▼

인적사항 기입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EXEN TIRE
we got you

NEXT LEVEL

타이어 교체만이 아니라,관리까지 도와주는

넥스트레벨 렌탈

25년 한정
넥스트레벨
임직원 프로모션

프로모션 조건 셋!

임직원 사번으로 넥스트레벨 홈페이지에서 타이어 렌탈 시

4본 렌탈 시

GS칼텍스 emart
주유상품권
50,000원

2본 렌탈 시

GS칼텍스 emart
주유상품권
20,000원

발송일자 : 타이어 교체 완료한 다음 달 중순
※ 타이어 교체 고객 전화번호로 주유상품권 발송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해주세요


NEXEN TIRE
we got you